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논문개요

본 연구는 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부부가 둘만이 살게 된 후 부부로서 삶에 적응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적응하는 방법의 특성에 따라 부부관계 유형을 나누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부부만 남아 살게 된 노인부부들이 이전의 환경과는 다른 부부가족으로 살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 부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특성을 찾고, 유형화하기 위해 단독가구 노인 부부를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 부부는 모두 12쌍으로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며 남성노인의 평균연령은 71.1세, 여성노인의 평균연령은 67.8세로 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69.5세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는 모두 초혼으로 살고 있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46.2년이었고, 평균자녀수는 3.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자는 1차와 2차 두 번의 면담에서 개방적 질문을 통해 단독가구로 살게 되면서 달라진 부부관계의 변화와 이러한 환경에 부부가 서로 적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특성에 따라 부부적응의 유형을 나누어 보았다.

면접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2) 단독가구 노인부부로 살게 된 이후에 달라진 변화는 무엇인가? 3) 단독가구 노인부부로 살게 되면서 부부가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다.

이와 같은 면접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단독가구노인 부부의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부부친밀감, 애정표현, 성생활, 의사소통, 성역할과 가사분담, 의사결정, 갈등해결방법, 사회활동과 공유여가 등 이었다. 노년기에 비교적 변화가 큰 건강과 경제력은 노인부부가 적응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노인 부부의 은퇴 전 사회경제적 지위나 부부의 학력수준은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독가구노인 부부가 부부적응을 하는 특성에 따라 부부관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누었는데, 친밀형, 공식형, 갈등형, 배우자 의존형, 냉담형이다. 이 중 가장 행복하고 바람직한 부부의 유형은 친밀형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친밀형의 부부는 젊어서부터 형성된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높고 확고하며, 편안하고 자유로운 애정표현과 함께 활발하고 의미 있는 성생활을 즐기고 있다. 또한 부부사이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부부갈등이 적고 매우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유형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서로를 가장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가사일 분담과 의사결정에서도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사회활동이나 취미생활은 늘 함께 하고 즐기며 만족감 또한 높다.

공식형 부부의 특성은 부부간에 친밀감 수준은 높지 않으나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온 동반자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부부의 성생활은 소극적이고 애정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산다. 부부는 외부의 모임이나 행사에는 함께 참여하므로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나 부부가 공유하는 취미활동은 없고 제한적인 의사소통을 하므로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의사결정은 남편의 은퇴 전에는 주로 남편이 결정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상의해서 절충을 한다. 또한 가사 일은 분담하지 않았다가 남편의 길어진 여가시간에 힘입어 청소 정도를 도와주며,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만 젊었을 때보다는 화를 푸는 시간이 짧아졌다.

갈등형 부부의 특성은 남편의 은퇴 전에는 비교적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은퇴 후 달라진 변화에 적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늘 싸우며 지낸다.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문제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노년기 이전에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노출되어 싸우지만 결혼을 해체 할 정도는 아니다. 부부는 새로운 친밀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하지만, 비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역기능적인 갈등해결 방법으로 늘 긴장이 잠재해 있다. 이 유형의 부부는 불안정하고 파괴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부부 사이에는 신뢰와 상호지지기 없다.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형태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부부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애정표현은 일방적이고, 성생활에서도 부적응을 나타낸다. 가사 일은 분담하지 않

으며, 남편의 은퇴 전에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지만 은퇴 이후에는 부인이 최종 결정을 하고 있다. 부부는 외부의 공식 모임이나 행사에는 함께 하지만 공유하는 취미활동이 없는 것이 불만이고, 부부 각자가 따로 바쁘게 생활한다.

배우자 의존형의 부부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은 부모 역할을, 또 한 사람은 자녀 역할을 하면서 보호와 양육, 지배와 순종, 의존성의 특성을 갖고 살아가는 부부이다. 남편이 건강을 상실한 이후 혹은 젊어서부터 부인에게 의존적이었던 경우로 신체적 의존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사회적으로도 부인에게 의존을 하므로 남편에게 부인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부인에게 남편은 아들과 같은 존재이다. 부부간의 친밀감은 낮고 애정표현이나 성생활은 하지 않으며, 남편 혼자서는 살아 갈 수 없으므로 부인은 남편이 먼저 죽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편의 의존에서 오는 부인의 스트레스는 주로 외부 활동이나 종교에 의지하여 풀고, 남편은 술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부부는 소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므로 부인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며 가사 일은 분담하지 않는다. 남편은 외부의 모임이나 행사, 취미생활도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이 늘 같이 다닌다.

냉담형 부부의 특성은 부부간의 친밀감이 낮고 만족도도 매우 낮다. 의사소통의 방법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표출되지 않고 참거나 삭히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 부인은 남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체념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나 애정표현은 하지 않고 대화도 꼭 필요한 말만 한다. 남편은 도구적이고 엄격하며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성역할 구분이 뚜렷하므로 가사 일은 부인이 혼자 담당하고 의사결정은 남편이 주도적으로 한다. 외부의 모임이나 공식적인 행사에는 부부가 함께 참여해도 나란히 같이 앉지 않고 따로 앉는다. 전통적인 남편은 독립심이 강하고 외부 일에 열성적이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다. 부부가 공유하는 취미활동은 없고 부인은 자신의 심정을 알려주거나 호소할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결혼하여 분가한 딸과 정서적인 애착이 강하다.

부부가 적응하는 특성을 토대로 하여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본 결과 친밀형의 부부가 가장 행복하며 이상적인 노년기의 부부로 나타났다. 공식형의 부부가 가장 많았으

며, 배우자 의존형의 부부는 노년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공식형의 부부와 배우자 의존형의 부부는 부부관계 개선과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갈등형의 부부는 부부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부부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부이다. 갈등형의 부부를 위해서는 부부마다 갈등의 원인이 다르므로 갈등의 원인에 따라 적합한 집단상담을 통한 부부관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냉담형의 부부는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부부로 교육프로그램보다는 부부가 참여할 수 있는 노년기 부부상담의 개발이 요구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2
1. 연구의 필요성	2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8
1. 노년기 부부관계의 특성	8
2. 노년기 부부관계의 유형	13
3. 노년기 부부적응	18
III. 연구방법	33
1. 조사과정	33
2. 자료수집 및 절차	36
3. 자료 분석	38
IV. 연구결과	43
1.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43
2. 부부관계의 특성	60
3. 부부관계 유형화	100
V. 결론 및 제언	127
1. 결론	127
2. 제언	131
3. 제한점.....	134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가족생활주기 신혼생활, 자녀양육 및 노인생활기간의 변화	9
<표 2> 부부관계 유형	13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46
<표 4> 근거자료의 범주화	61
<표 5> 친밀형 부부의 특성.....	104
<표 6> 공식형 부부의 특성.....	109
<표 7> 갈등형 부부의 특성.....	115
<표 8> 배우자 의존형 부부의 특성.....	120
<표 9> 냉담형 부부의 특성.....	126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절차.....	42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년기는 생활범위가 가족에게로 축소되는 시기로 부부나 자녀 등 가족 간의 유대나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 등 전반적인 안녕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부부관계는 가족 내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관계이다. 오랫동안 생활 속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노년기까지 함께 생활해 온 노인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노년학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 노화현상이 나타나고 심리적으로는 자녀의 출가와 은퇴로 인하여 상실감을 경험하지만 부부관계는 신혼 초와 같이 만족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특히 자녀의 성공을 위해 삶의 에너지를 쏟았던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에 들어서야 비로소 미처 돌보지 못했던 부부의 정을 생각하게 된다. 과중한 자녀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 심리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과 이동의 자유, 가사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의 자유 등으로 부부만의 접촉의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다시 신혼과 같은 '둘'만의 오붓한 관계로 돌아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면서 새삼 진실한 동반자 의식을 갖게 되고 서로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 노년기는 힘의 약화나 질병과 같은 신체적 · 생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은퇴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 심리적 적응의 문제 등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단독가구 노인부부들은 동거 가족 없이 부부만 생활하기 때문에 부부의 친밀감과 결속감이 더 증진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성역할 전환 등 노년기의 발달과업에서 부적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 부부간에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갈등이 보다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결혼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결혼생활의 안정성보다는 부부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노년기 부부에게도 영향을 미쳐 해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해 학자들은 오늘의 노년기 부부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와 기회에 직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의 가정생활에서 기혼자녀와의 동·별거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정작 노인의 부부문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전형적인 단독가구 형태로 노인부부가족이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서구의 부부가족 이념의 도래,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노년기 부부의 적응 문제는 중요한 발달과정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 이후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점차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와 노부모의 동거의 필요성도 감소되어 가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수의 감소로 자녀 독립 후의 노년기가 길어지게 되어 노인부부가 20년 이상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계청, 2003).

이처럼 노년기에 부부가 함께 지내야 할 물리적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노년기 부부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시사점을 부여한다.

첫째,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친밀한 관계의 근원이자 일차적 집단이었던 친족집단을 상실하고, 은퇴 등으로 직장과 사회로부터도 격리되고, 부양의식의 변화로 부부가족이 된 노인에게 있어서 배우자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인 동료감과 친밀감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전통적 부계 중심의 수직적 가족구조에서 부부 중심의 수평적 가족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부부 중심의 문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노년기 삶의 만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부부가 둘만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데는 생활양식의 변화가 수반되고 둘만 지내게 되는 환경에서 부부관계의 질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이 같은 다양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기존의 사회 체제에 익숙한 노인들일수록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부부만 지내게 되는 환경에서 원만하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동반자적 관계로 변하는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 그리고 노년기의 남녀 성역할 분담 등은 주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강미선, 1991; 김혜경, 1996).

이처럼 장기화된 노년기를 더욱 보람 있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부부 중심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각 부부의 특성에 맞는 적응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김혜경, 2006). 지금까지 노년기 부부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년기 배우자

사별, 황혼이혼과 노년기 재혼, 결혼생활만족도, 그리고 은퇴 후의 부부적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노년기 단독가구 노인부부로 살면서 나타나는 부부관계의 적응과 그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부관계의 유형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이러한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밝혀주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는 부부갈등이나 부부친밀감의 문제를 호소하는 부부들에게 어떠한 접근을 통해 부부관계의 적응을 향상시킬 것인지를 도와줄 만한 정보가 미흡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단독가구 노인부부관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부부가 적응하는 특성에 따라 부부관계의 유형을 나누어 보는 연구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 가족연구 분야에서는 노인부부들의 부부관계 적응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인상담이나 노인교육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예비 노년기 부부들에게는 머지않은 시기에 단독가구 노인부부로 생활하게 됨을 예상하여 다가올 노년기 부부관계를 위해 부부가 각자 노력하고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인생의 마지막 발달단계에 있는 노년기 변화와 적응에 따른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년기 단독가구 노인부부의 관계를 연구하는 일은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현재 우리 사회에는 결혼한 부부가 자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해 나간 뒤 부부만 지내게 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모든 결혼의 과반수가 마지막 자녀가 출가하기 전에 어느 한 쪽의 사별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지속되지 못하였으나 평균수명의 증가와 가족단위의 축소는 부부의 빈 등우리기 기간을 상대적으로 연장시켰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노부부가 자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노부부만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증가와 노인들의 의식의 변화로 노부부만이 생활하는 부부가족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이 시기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 노후 삶의 만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노년기 부부는 애정과 우정,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즉 젊어서의 남편과 부인으로서 상호 도구적 역할로부터, 노년기에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관계의 심화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부부간의 동반감이 더욱 증대한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해로하며 매일 서로가 쌓아가는 감정적인 유대이다.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줌으로써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아낌을 주고받으며 관심사를 같이 하고, 공동의 화제가 고갈되지 않도록 관계를 키워가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퇴직한 배우자가 긍정적인 자아감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줄 때 확인되고 지지받는 관계로 인하여 노년기 결혼관계의 부부생활 만족도가 증대될 수 있다.

이처럼 노부부만 생활하는 노년기 부부들은 가정생활의 주체가 되어 가정 내의 모든 문제를 생활의 변화에 맞게 해결해 나가야하므로 노부부간의 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의 갈등이 보다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생활만족도, 행복, 건강, 수명까지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온 부부들에게 노년기의 새롭고 조화로운 부부간의 적응에 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행복한 노년기 부부관계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의 만족이나 자아통합감을 갖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족을 형성하여 빈 동우리기를 살고 있는 노부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부부친밀감, 성생활, 의사소통, 성역할과 가사분담, 의사결정, 갈등해결의 방법, 사회활동과 공유여가 등의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 부부들이 면접과정에서 밝힌 그들의 생애사 내용 즉, 부모 봉양의 경험, 빈동우리 기간의 지속기간, 남편의 은퇴, 남편의 전통적인 결혼관 등을 통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들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부부적응에 관련된 요인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부부가 부부관계에서 적응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도시 단독가구 노인부부의 적응에 가족복지적 개입과 상담치료 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부부관계의 특성

오늘날 노년기가 길어지는 생활주기의 변화로 노후의 부부관계는 많은 관심의 초점을 받기 시작했으며, 부부관계의 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노년기 부부적응의 성공 여부와 만족의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게 되었다(김태현, 2007). 많은 연구들은 부부의 만족스런 적응이 노인부부들이 사회생활에서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지를 제공해주며 정서적인 안녕감을 증진시켜준다고 하였다(Rowe 외, 1997). 현대 사회에서 노년기 부부관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1) 연장된 노년기 부부관계

한 가족의 형성, 확장, 축소 및 소멸의 과정은 가족생활주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는 한 개인의 가족 내 역할수행과 개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자신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는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인지하도록 해 준다.

Duvall 외(1985)는 가족생활주기를 8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한 부부가 결혼해서 평균적으로 2년이 지나기 전에 첫 자녀가 태어나고 25~35년 동안 자녀를 기르는데 헌신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노년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자녀진수기(제6단계)부터 노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하기 까지 전체 8단계 중 3단계가 해당된다.

얼마 전 까지 만해도 대다수의 결혼관계는 마지막 자녀가 출가하기 전에 어느 한 쪽(주로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붕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막내가 부모 곁을 떠난 후에도 자녀들과 같이 살던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만큼 더 긴 기간을 부부가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김태현, 2007).

<표 1> 가족생활주기 신혼생활, 자녀양육 및 노인생활기간의 변화

결혼 코호트	신혼부부 기간	자녀양육 기간	노인 생활 기간
--------	---------	---------	----------

			노부부 기간	여성 노인만의기간	소계
~1959	2.4	36.6	9.5	8.6	18.1
1960~1969	1.7	33.2	10.5	12.5	23.0
1970~1979	1.4	31.7	13.6	12.3	25.9
1980~1989	1.3	30.9	14.8	12.8	27.6
1990~2000	1.2	30.1	19.3	12.2	31.6

자료: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연구원

<표 1>을 보면 1959년 신혼집단의 신혼부부기간은 2.4년이었으나 2000년 결혼집단에서는 1.2년으로 단축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 내 자녀 양육기간은 36.6년에서 30.1년으로 6.5년이나 짧아졌으며, 막내 자녀 결혼 후의 노인부부가 생활하는 기간은 18.1년에서 31.6년으로 무려 13.5년이나 늘어났다. 특히 노부부 기간은 9.5년에서 19.5년으로 늘어나 2배 이상 장기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새로운 역할전환

노년기는 중년기 이후 자녀의 독립과 더불어 가장 핵심이 되어 오던 부모역할에서 벗어나는 축소기부터 은퇴와 더불어 시작되어 한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이 나는 마지막 소멸단계까지 부부는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는 가족주기의 변화로 빈 등우리기 또는 노년기가 연장됨으로써 오는 변화에 재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다.

자녀가 세상을 향해 '진수(launching)' 해 갈 때 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유형은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자녀의 진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빈등우리기' 모델이다. 자녀가 집을 떠날 준비가 다 된 진수기의 어머니는 자녀의 진수를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이는 흔히 남편의 애정과 동지애의 상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Troll, 1975). 즉, 자녀의 진수에 대해서 가장 불행하게 느끼는 어머니는 자신이 남편에 의해서 무시되고, 이해받지 못하며, 항상 외롭고, 남편의 동료애에 대해서는 기대할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거의 완료하면서 자신들의 자유와 독립성을 증가시키는 '곡선' 모델이 있다. 자녀는 방위가족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과정을 겪게 되고 부모들은 서로에게 친밀감을 증진시킬 기회가 주어져 부부관계에 주요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측면이다.

현재의 노년기 부부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남자는 도구적 역할, 여자는 표현적 역할이라는 전통사회 부부관계의 개념과 열정, 사랑의 표현, 의사소통, 상대에 대한 존경 등의 애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의 부부관계의 개념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에도 여전히 남성 노인은 여성노인보다 가부장적이고, 아내가 우애주의적인 가치관을 높게 가지고 있을수록 남편과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이행옥, 2002).

이처럼 노년기 부부관계에 있어 역할전환의 적응은 결혼생활의 향상에 매우 필요한 일이며 가족주기의 전환기에서 부부간의 친밀도나 재결속을 시도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 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역할전환이나 역할변화에 서로 잘 적응하는 것이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노년기 결혼안정성

부부관계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남녀가 인격적으로, 심리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인간관계로 임시적이 아니고 지속성이 있는 관계이다. 그런 면에서 노인부부가족은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으로서 지금까지 서로 익숙해져 있던 관계 속에서 상호 지지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족을 유지한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결혼 관계는 배우자간에 도구적 및 정서적 지지를 수반하기 때문에 생활범위가 축소되는 노인에게 있어 특히 중요하며 노년기의 긍정적인 결혼관계는 부부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여 결혼안정성을 높인다.

특히 노년기는 신체적 · 사회적 · 심리적 등 전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여서 생활 범위의 축소와 노화에 따른 여러 측면의 감퇴를 경험하게 되므로 노부부가 젊을 때보다도 결혼 외부적 대안의 선택이 넓다고 볼 수 없다. 즉,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의 경향은 노부부의 개인적 특성 및 결혼관계의 여러 특성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년기 부부는 노화에 따른 변화에서 오는 생활 사건들과 가족관계에서 오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된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의 증가는 부부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서로에게 관심과 친밀감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게 되면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부부간의 성격문제, 의사소통 문제, 애정 문제 및 성문제, 가치관 및 생활습관과 같은 결혼관계 측면에서의 불일치는 부부간의 긴장과 갈등의 근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양옥남, 1995; 전길양 외, 1998), 노부부의 결혼관계 스트레스는 결혼안정성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경우, 결혼의 의미를 두 남녀가 모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보기보다는 친족집단을 재생산하고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므로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현대의 결혼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동원, 1988).

한편 Sweeney(1982)는 노년기 부부관계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매우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는 부부, 둘째, 불행하지만 습관과 두려움 때문에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부부, 셋째, 서로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으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결혼생활을 유지시키는 부부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Atchley(1980)는 자녀가 떠나간 노부부만의 시기에 생활만족도는 부모자녀 관계 외에 부부관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즉,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살아왔던 부부라면 자녀들의 출가와 함께 이혼으로 직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부부사이가 서로를 깊이 아끼는 관계였다면 새로 얻어진 부부만의 사생활이 두 번째의 밀월처럼 여겨질 수 있고, 깊은 애정도 없지만 큰 충돌도 없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생활해 온 부부라면 여전히 서로의 독립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 출가 이후의 부부관계는 결혼생활의 다른 어떤 기간에 비해 그 생활 방식이 다양해 질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들(김수현, 1999; 이신숙, 1997; 이동원, 1988; Miller, 1976)은 배우자 선택관이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고 부부의 애정과 사랑, 동반자적 가치가 높은 결혼태도를 지닌 부부들이 결혼의 질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어 부부중심의 우애적 결혼 개념이나 성역할 태도는 결혼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년기는 은퇴나 사회관계의 축소 등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에 긴장과 어려움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유영주, 1990).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성공적으로 위기상황을 재정의하여 부부간의 유대감을 증가시키는 결혼응집성이 높을 때, 노부부는 그

상황에 대한 수용감과 이해를 증진시켜 안정감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최연실, 1996).

2. 노년기 부부관계의 유형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면서 나타난 적응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연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부중심의 친밀감이나 성생활 혹은 갈등해결방법에 따라 유형을 나누기도 하였고, 부부의 역할변화에 따라 유형을 나누기도 하였다.

<표 2> 부부관계 유형

연구자	유형 판별요인	부부관계 유형
Medly (1976)	친밀감, 부부의 역할	부부중심형, 부모-자녀형, 동료형
Cuber & Harroff, (1986)	친밀감, 갈등해결방법	주기적인 부부, 갈등이 습관화된 부부, 활기가 약화된 부부, 냉담으로 일관한 부부, 활력적인 부부, 전체적인 부부
Adams (1995)	부부의 역할변화과정	전통주의, 신전통주의, 평등주의
윤양현 (1987)	성역할, 갈등대처 방법, 성생활	아내갈등형, 남편갈등형, 상호갈등형 I, 상호갈등형 II
변화순 (1999)	친밀감, 성역할	가부장적 부부, 수정된 가부장적 부부, 평등한 부부

Medly(1976)의 연구를 보면 첫째, 부부 중심형(the husband-wife)으로 이 유형은 친밀감을 강조하고 관계의 특성을 공유하며 반드시 다른 역할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부부의 역할에 결혼의 초점을 두는 형이다. 둘째, 부모-자녀형(the parent-child)으로 이 유형은 배우자 중 한사람은 부모역할을, 또 한사람은 자녀역할을 하면서 보호와 양육, 지배와 순종, 의존성의 특성을 갖는 형이다. 이 경우는 배우자의 한쪽이 건강을 상실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셋째, 동료형(the association)으로 이 유형은 친구나 동료로서 행동하며 부부관계의 친밀감과 부모역할의 만족감이 중합되어 부부관계의

영속성을 증진시키는 형이다.

Cuber & Harroff(1986)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유형을 6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주기적인 부부관계(the cycle relationship)유형으로 남편과 아내는 극심한 갈등상황을 경험하면서 서로 불만족하게 되고 힘들어하지만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고 화해와 회복으로 만족감을 다시 찾고 평정을 누리게 되는 관계이다. 이들 부부는 과정상 극에서 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주기적으로 경험하면서 부부관계를 맺어가는 유형이다.

둘째, 갈등이 습관화된 부부관계(the conflict-habituated relationship)로 이 유형의 부부는 심한 긴장과 피할 수 없는 갈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사소한 일상생활의 견해 차이에서부터 도덕률, 종교, 정치문제 등에까지 이르며, 단지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싸움이 일어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싸움이 결혼을 해체시킬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불안정한 결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들은 싸우면서 살아가는 관계이다.

셋째, 활기가 약화된 부부관계(the devitalized relationship)로 신혼초기에는 낭만적 사랑과 친근감에 휩싸여 활기차고 강력한 감정적 교류가 있었으나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부부관계는 생기를 잃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고 있다. 같이 지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의무적으로 계획하고 즐기며 가족과 같이 지내는 것은 자발적이기보다는 책임감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럭저럭 서로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서 결혼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관계이다.

넷째, 냉담으로 일관된 부부관계(the passive-congenial relationship) 유형으로 이 유형의 부부들은 처음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높은 정도의 정서를 품은 일이 없다는 점에서 활기가 약화된 부부관계와 구별된다. 이 관계는 정서적인 친밀성보다는 경제적 안정, 재산확대, 명예, 출세, 전문성의 성취, 자녀에 관한 희망 등에 관심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들은 결혼에 대하여 높은 기대를 걸기보다 그저 편리하고 안락한 삶의 한 방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과 창조적 역량은 생업, 전문성, 사업 등에 쏟으며 자신의 직업생활과 사회관심사에 몰두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결혼생활을 공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부부관계의 정서적 친밀감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부부보다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다. 이 유형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개입하기보다는 체념한 상태로 만족감도 없으며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다섯째, 활력적인 부부관계(the vital relationship)인데 근본적으로 서로의 개인적 감

정으로 결합된 유형으로 부부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즐기는 것이다. 활력적인 부부관계는 부부가 서로의 심리적인 만족감에도 관심을 갖게 되며, 각자가 독자성을 가지면서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이들은 부부관계 자체가 각자에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하며 직업활동과 사회활동 등에서도 성공적이다. 그러나 이 유형에게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적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가능한 한 빨리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활력적인 부부의 유형은 갈등이 발생할 때 곧 조정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갈등으로 인한 긴장의 시간이 짧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부부관계(the total relationship) 유형은 부부가 생활의 보다 많은 측면에 걸쳐서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활력적인 부부관계'와 구별된다. 부부는 비슷한 직업, 같은 직장, 공저(共著),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과 같이 일을 함께 하며 생활한다. 이 유형은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하나로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부부관계이다. 이들은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목적은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이며 갈등해결의 첫 번째의 고려는 누가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그들의 '관계'를 상실시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 유형은 모든 일상생활이 부부 중심이어서 부부간에 너무 친밀하고 깊이 몰두하여 때로는 자녀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도 있다.

Adams(1980)는 부부간의 역할 변화 과정에 대하여 전통주의, 신전통주의, 평등주의로 설명하고 있다. 전통주의(traditionalism)는 부부간의 역할구분이 뚜렷하여 남편과 부인은 각기 분리된 채 역할수행을 하게 되며 서로의 역할에 관여하지 않음을 뜻한다. 신전통주의(neo-traditionalism)는 부인의 사회진출·사회적 역할은 경우에 따라 인정하되 그에 따른 남편의 가족 내 역할 보충은 일어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남성우위적인 가치의식이 지배적임을 말한다. 평등주의(equalitarianism)는 남편, 부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의 목표·능력에 따라 원하는 역할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국내의 연구자 윤양현(1987)은 부부관계를 4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아내 갈등형은 전통적 관념을 가진 현모양처형의 아내가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강한 가학적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부부관계이다. 이 관계 속에서 학대받는 아내는 자녀를 학대함으로써 학대의 재생산구조를 형성하는가 하면 성관계의 만족에 집착하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는 연극적 테크닉을 사용함으로써 갈등을 기피하

고 있다.

둘째, 남편 갈등형은 투철하지는 않으나 근대적 평등의식을 가진 남편이 전통적이고 현실적(물질주의적)인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부부관계이다. 이 관계 속에서 남편은 가정 밖의 업무적, 정서적 준거집단에 열중하고, 부부관계에서는 성관계에 집착함으로써 갈등을 기피하고 있다.

셋째, 상호 갈등형 I은 권위주의적 남편과 현모양처로서 무능력한 아내 간에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부관계이다. 그러나 남편의 권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아내의 연극적 테크닉과 남편의 밖에서 활성화된 동료관계를 통해 이들은 부부간의 갈등을 은폐시키고 있다.

넷째, 상호 갈등형 II는 의존적이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난 남편과 전통적이지만 모성적이지 못한 아내 간에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부관계이다. 그러나 아내의 자녀에 대한 집착과 남편의 집단주의적 가족주의 의식으로 이들 부부는 불만의 노골적인 표출방식을 무감각하게 지속시키고 있다.

변화순(1999)의 연구는 한국 노인들의 부부관계를 가부장적 부부관계, 수정된 가부장적 부부관계, 평등한 부부관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노년기 부부관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젊었을 때부터 남편의 가부장적 위치가 절대적일수록 자녀의 교육이 어느 정도 끝나고 생활의 안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노년기에는 부인의 위치가 점점 확고해지면서 부부관계가 약화되거나 냉랭한 관계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고, 결혼 초에는 남편이 가부장적이었으나 역할 수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 융통성과 이해를 보이고 어려울 때 협조적인 수정된 가부장적인 관계의 경우는 노인이 된 후 부부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에 따라 노후에는 가사역할, 취미생활을 함께 하게 되고 더욱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평등한 부부관계는 결혼 초부터 서로 상의하며 협조하면서 부부간의 애정을 확인해 온 관계로 이를 일생동안 유지하면서 노년기의 부부관계가 확고하였다. 즉 부부 양자간의 성역할 태도의 불일치는 부부관계 긴장감을 낳게 되는데 그 중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갖는 남편과 근대적인 성역할을 갖는 부인의 결혼생활이 질이 가장 낮으며(서동인, 1995), 그 이유는 전통적인 남편의 역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인의 압력과 그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남편 저항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3. 노년기 부부적응

노년기 부부적응은 노년기 이전의 부부관계의 질에 따른 것이고, 부부관계의 질적인 많은 부분이 남편의 가부장적인 위치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자노인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등의 가족 관계의 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혜경 외, 1999).

Fried & Stern(1948, 서병숙 1991에서 재인용)은 노인 중 결혼에 만족한다고 한 거의 대부분은 좋은 결혼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50% 이상은 노년기에 더욱 만족한 결혼생활을 한다고 하였고, 남편이 불만족한 경우는 결혼 초부터 다소 불만족하였고 50% 정도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의 결혼 적응은 초기의 적응과 관계가 깊다.

그러므로 결혼 초부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기에도 결혼생활이 만족스러웠던 부부는 노년기에 와서도 서로 간의 생활유형이나 심리적, 환경적 적응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으므로 노년기에도 계속 만족스런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김태현, 1994).

1) 노년기 부부적응의 특징

부부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학자마다 부부적응(강주령, 1990; 이신숙, 1997), 결혼적응(김태현 외, 1997), 결혼만족도(윤영, 1990; 김혜경, 1996; 조병은 외, 1997; 김수현, 1999), 생활만족도(김종숙, 1987; 이우복, 1993)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 적응의 개념을 살펴보면, 결혼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을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사회문화적으로 부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서 바람직한 결혼생활의 영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이신숙, 1997). 이는 부부 상호 간의 적응이 잘 이루어질 때 부부관계는 비로소 만족과 안정을 찾게 되며 이것은 가족 전체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것이다(유영주 외, 2000).

노년기에 적응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의 생활도 계속 유지하면서 주어진 생활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즉, 체력이나 건강의 쇠퇴에서 오는 노화를 인식하고, 은퇴와 수입의 감소에서 오는 육체적, 사회적 생활범위의 축소나 재정립을 이해하며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녀를 떠나보내고 난 후의 빈 둥우리시기에서 부부간의 친밀도가 강화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 자녀와 남편을 돌보는 것에만 전념하였던 전통적인 아내는 직업생활에서 은퇴한 남편과 함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새로운 형태의 적응을 강요받게 되기도 한다.

노년기 초반의 부부관계는 은퇴로 인해 노년기의 주된 생활 장소가 남녀 모두 가정으로 바뀌어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와 직업을 중요시 여겼던 남자들이 가정생활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전에 가졌던 부부관계의 질에 따라 갈등의 정도가 다르며(이신숙, 1997),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자노인은 과거에 대한 애착과 부양을 더욱 요구하는 반면 여성노인은 공격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등(손승영, 1999) 권력구조나 관계 면에서 부부관계가 갈등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김혜선 외, 2004).

노년기 부부의 갈등이란 보통 외부적으로는 없는 듯 보이나, 부부관계의 성역할 전환기의 적응과정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년기 부부관계에 있어서 역할전환의 적응은 결혼생활의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생애 다른 주기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시각(Anderson, 1992; Dorfman 외, 1988)과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Brubaker 외, 1992)이 있다. 전자는 많은 역할에서 해방되면서 노년기의 부부들이 서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서로 상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다른 주기보다 한층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노년기의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서로를 규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상호간에 더 많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의 출가로 인해 빈 둥우리(empty nest)에 남은 노년기의 부부의 상호 의존성이 더 높고, 부부관계의 질 또는 만족수준이 노인들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2) 부부적응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① 부부친밀감

은퇴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된 노년기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긴밀해져서 감정적인 관계의 질이 유지되는데(Carstensen, 1993), 결혼이 주는 중요한 장점은 친밀감(성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 상호 의지(과업과 자원의 공유), 서로에 대한 소속감이다. 그러므로 노년의 부부관계가 안정적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애정이며, 노년의 부부역시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통관심사뿐만 아니라 동료애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기회를 중시한다고 한다. Anderson(1992) 역시 은퇴 후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애정적 지원과 성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노년기의 성공적인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애정적 지원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Atchley, 2000; Levinson 외, 1995)은 중년기 부부와 비교해서 노년기 부부들이 잠재적 갈등 요소들의 심각성이 적어지고 즐거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애정을 더 많이 표현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노년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부부간의 애정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짐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기는 다른 시기보다도 부부간의 친밀감이 증대되고 친밀한 관계는 노인의 우울증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어(Antonucci, 1990), 부부의 친밀감 및 동료애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울증상이 있는 부부는 배우자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높아 부부간의 부적응이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행옥(2002)이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상호관계적 맥락에서 가족주의 가치관과 정서적 상호작용, 사랑과의 역동성을 증명한 바에 의하면 부부간의 사랑과 평등을 강조하는 우애주의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부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과 헌신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성생활

부부의 성은 결혼생활의 일부로서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친밀감과 애정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특히 오늘날 부부중심가족은 과거와는 달리 부부간의 애정과 친밀성이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면서 결혼생활에서 성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더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노년기의 성 활동은 서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주며, 연대감을 부여하고 자기 유용감을 얻게 하는 등의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데 기여한다고 한다(김태현 외, 1996).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노인의 성생활은 자아 존중감과 여자노인의 성생활은 현실 만족감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은, 1999).

노년기의 성과 삶의 질 간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능동적인 성생활과 친밀한 관계를 즐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Brecher, 1984; 이순희, 1992; 김주희 외, 2000; 성남 여성의 전화, 2003),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성을 통해 삶의 존재, 즉 자신이 살아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Brecher, 1984; 서혜경 외, 1997), 행복할수록 성생활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희, 1991; 김홍란, 2004). 이와 같이 노년기의 성은 직접적인 성적 욕구 충족과 함께 위로·위안이라는 애정적이며 정신적인 의미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따라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생활을 위해서는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따른 부부간의 성적 조화가 매우 중요하며(김태현, 1994), 부부의 성적 만족이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이유는 부부의 성생활이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느낄 수 없는 안락감을 주고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며,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해방이전의 출생자들로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에 강하게 젖어 있다(조성숙, 1999). 이들 노인들이 교육받고 경험해 온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는 부자관계가 부부관계에 우선하는 부자 중심형 가족으로, 부부간의 사랑이나 애정과 같은 감정적 표현은 무시되었고, 또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관계는 애정표현이나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의무에 지나지 않았다(이광규, 1975).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금기, 규제와 편견(Cox, 1999)이 일반적이고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ageism)이 더해져서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고정관념, 사회적인 편견은 노인들의 성에 있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욕구가 있어도 사회적 관습이 요구하는 대로 점잖은 체 하고 손자녀들이나 자식들에게 인자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했으며, 혹시 성적인 관심을 보이면 체면을 깎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는 노인들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어도 표현을 절제하고 음

성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하거나 무조건 억제하고 참는 태도를 갖게 한다(강현숙, 2002).

또한 부부의 성만족도는 의사소통과 성 지식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김요완(2000)의 연구에 의하면 언어적으로 개방적이고 감정표현이 잘 이루어지는 부부의 성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성적 느낌이나 욕구를 공유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성적으로 만족하는 부부는 남편이 성관계 의사를 표현하지만 부부가 서로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성에 대한 욕구나 선호에 대한 의사소통은 서로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높은 성만족을 낳지만 대화의 부재는 부부의 성 갈등을 누적하고 반복적으로 만들어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이호선, 2004). 부부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은 성관계를 만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성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생활 불만족에 대해서 부부간 의사소통이 단절된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 부부간 성에 대한 자기노출이나 성에 대한 대화가 결혼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남영주 외, 2006).

그러나 우리나라 부부 간의 성 의사소통 수준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성 의사소통 수준이 낮아져 60대 이상 연령 집단이 성 의사소통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성을 금기시 하는 유교적 전통 속에서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에서 성생활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을 뿐 아니라 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왔기 때문이며(김기연 외, 2003), 60대 이상 연령대의 집단은 성에 대한 문제를 편안하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③ 의사소통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부부관계 유지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 할 시간이나 적합한 장소가 필요하며 부부간에 감정의 전달 및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부가 각기 자라온 사회, 문화, 경제, 가족적 배경의 상이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표현하며 서로의 합의점을 찾으려 하며 듣고 말하는 태도가 성의 있게 이루어질 때 부부간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특히 노년기 부부에게 배우자는 일평생을 같이 한 동반자일 뿐 아니라 비슷한 삶의 주기를 살아 온 동년배이자 친구이기 때문에 노부부의 대화는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고,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 영향변인으로 작용한다(모선희, 1991; 김혜경, 1996).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부부일수록 갈등이 낮고(김경신 외, 2001; 김혜경, 1996; 전길양 외, 1998) 결혼 및 생활만족도도 높으나(김혜경, 1996; 서병숙 외, 2000; 박지은, 2001),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사소통은 감소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부부간 갈등이 증대하고 생활만족감의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김태현, 2000).

우리나라 노인들은 유교화의 영향으로 부부간 권위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어 오면서 부부관계가 분리되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적은 편이며 여자노인의 경우 자신을 내세우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아 온 경우가 많아 서로의 회로애락을 표현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계획도 혼자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경향이 있다(임정빈 외, 1997). 이처럼 노년기의 의사소통은 독특한 특성을 보이며 가부장적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정도가 차이가 있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김영나(2001)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 노인 모두 부부간에 비교적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문제, 자녀 및 손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많이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일상생활이나 여가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부관계의 갈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부부관계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고 일치하는 의사소통은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결과 문제해결의 합리적인 방법 등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Jacobson 외, 1970).

④ 성역할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 과정은 부부로 하여금 각각 정해진 남녀의 성역할을 수행하

도록 요구하고 그에 따라 뚜렷이 구분된 성역할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은퇴 등으로 인하여 남성은 수동적이고 양육적이 되며, 자녀양육의 역할에서 벗어난 여성은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적이 되는 등 성역할에서 변화가 일어나 양쪽 모두 성역할에 대한 의식을 재편성하지 않는 한 부부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김애순, 1993).

이처럼 남녀의 성역할 태도의 변화는 부부간의 결혼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연구에서 강조한다(박주희, 2003; 차성란, 1998; 안선영, 1994; 양명숙, 1996). 성역할 태도의 불일치는 부부생활에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남편이 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경우 결혼생활만족도는 더욱 낮아지며,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노인일수록 그들의 부부 적응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며(양명숙, 1996; 이신숙, 1997), 특히 남자노인들의 경우에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결혼만족도는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신숙 외, 1999).

또한 부부 모두 양성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닐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 외, 2005). 양성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사람일수록 새로운 상황에 더욱 융통성 있게 대응하며, 높은 자존감을 지니므로 전통적인 성역할을 갖는 사람보다 결혼생활에서도 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Rice, 1990).

⑤ 가사노동 분담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선행연구는 은퇴 후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가사노동에 대한 기대, 가사노동 패턴의 변화와 지속성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은퇴 후의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본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남편 은퇴 후의 가사노동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은퇴 후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나 참여정도가 높아지면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고(조병은 외, 1997), 남편과 부인 모두의 만족이나 사기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Vinick 외, 1992; Brubaker, 1985).

부부역할이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은퇴 후의 남편, 부인 모두의 적응을 촉진하며 특히, 남편의 남성적인 집안일 참여(예: 정원 가꾸기.....)가 남편, 부인 모두의 생활만족도나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가사노동 분담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부인은 자신들의 역할이나 관계에 만족하지만,

집안일의 분담에 불공정성을 인지한 부인의 우울증이 높고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으며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인이 기대한 만큼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Lee 외, 1989).

Dorfman(199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은퇴 후 부인과 남편의 실제적인 가사분담행동은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은퇴 후 정원일이나 집을 수리하는 일 등에 참여하고 집안일 전체에 대한 책임을 맡기보다는 부인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은퇴 후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부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비교적 오래 전에 행해진 연구로 Brubaker(1985)에 의하면 부인들은 남편의 집안일 참여를 원하면서 동시에 가정 내에서의 책임과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은퇴로 부인의 영역이 침범되며, 시간을 많이 공유하게 되어 사생활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신화용 외, 1997).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참여 증가가 오히려 자신의 영역을 계속 고수하고자 하는 부인의 영역에 대한 침범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이 부인이 하는 집안일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거나 잔소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명령까지 할 때, 부부간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혼 후 오랜 기간 동안 부인이 수행하고 결정했던 일을 새롭게 분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협상과 재조정이 요구된다.

⑥ 의사결정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의사결정을 권위, 권력, 지배, 영향력과 같은 용어와 상호 교환하여 사용해 왔는데 특히, 권력에 관한 상당수 연구들은 부부 권력의 주요 지표로 부부간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조사함으로써 의사결정을 권력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Mirowsky, 1985; Sprecher 외, 1997; Wesson, 1996).

김재엽(1998)은 주요한 가사결정에 있어서 최종결정을 누가 내리느냐를 통해 부부의 권력구조 유형을 알아본 결과 남성우위형이 24.0%, 여성우위형이 11.5%, 권력분리형이 35.5%, 평등형이 29.0%로 나타났다. 즉, 바람직한 권력유형을 평등형이라고 볼 때, 노부부의 권력구조는 남녀가 각각 권력의 우위를 지키거나 혹은 서로 나누어 갖는 비율이 권력을 공유하는 평등형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의사결정수준이 더 높다는(지금수

외, 1999) 견해와 남자노인의 의사결정권이 많다는(김태현 외, 1999) 견해가 있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 남녀노인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이 차이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노부부의 의사결정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체로 노부부가 가정 내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노부부의 부부간 의사결정 참여를 조사한 국내연구는 전무해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단지 이와 관련된 연구(김재엽 외, 1998)에서 노부부가 권력을 공유하는 평등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우리나라 노부부의 권력구조는 여전히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⑦ 갈등해결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갖게 되는 조건이나 환경적 변화, 개인의 모든 특성이 노출되는 부부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부부들은 오랜 시간을 공유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갈등 수준이 낮고 친밀감을 높게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지만(Kelly, 1981), 많은 연구들은 또한 다른 가족생활주기의 부부들처럼 노년기에도 친밀감과 함께 갈등이 공존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부갈등은 가족 내, 외의 변화로 인해 심화되기도 하고, 부부의 갈등해결 의지와 노력으로 완화되기도 하면서 부부의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갈등이 건설적으로 해결 될 경우 부부관계는 더욱 성숙해지고, 긴밀해지고, 안정적인 결혼생활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긴장이나 불안의 증가, 부부사이의 믿음이나 신뢰저하, 결혼생활의 질이 낮아짐을 예견할 수 있다.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사소통의 감소를 가져와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년기에 부부간의 갈등은 은퇴 이후의 확실한 노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나 뚜렷한 성관계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도 부부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노년기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부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건설적인 대화나 노력을 통하여 서로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노부부들은 결혼관계에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부가 체념이나 회피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거나 비난이나 부정적 감정노출 등의 대처방식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결혼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⑧ 사회활동과 공유여가

노년기가 되면 가족이나 친구 등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조직망은 과거 젊은 시절에 비해 좁아지고 그들과의 관계가 결국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노인의 사회활동은 사회적 통합의 통로이며 노년기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안녕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처럼 노년기 사회활동은 신체적 건강의 증진, 사회적 접촉 기회의 제공, 삶에 대한 사기 및 만족감의 증진,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감 부여, 유용감과 자기 가치성의 확신, 자율적인 생활에 대한 기술과 기능의 증진, 재미있고 즐거운 삶의 영위 등을 도모할 수 있다(Leitner 외, 1985). 또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 발전시키는 등 개인 욕구의 충족 뿐 아니라 친밀성을 형성할 수 있는 지지망을 조성케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노인들을 통합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Kelly, 1987).

이러한 점에서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노년기 생활만족도 및 삶의 행복감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서병숙, 1994).

Duvall(1977)은 부부가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것이 부부간의 만족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부부관계가 확립되는 때인 결혼 초 5년 내와 자녀가 다 떠나고 다시 부부만 남는 결혼 18~23년 후의 여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외의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의 한 영역으로서 부부공유 시간이나 공유 활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White(1983)는 부부가 식사, 쇼핑, 친구방문, 외출, 가사노동에 함께 참여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Orthner(1975)는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커질 때 관계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증가할 것이고 이해가 증진될 것이며, 개인은 결혼의 부정적 결과를 갖는 행동을 변경시킬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면서, 부부가 함께 여가에 참여하는 것이 혼자서 참여하는 것보다 더 기능적이고 결혼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이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부간의 공통된 흥미와 함께 보내는 여가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Snyder, 1979).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사회활동 빈도가 높고 노부부가 함께 사회활동에 참여할 때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나고(강미선, 1991; 김혜경, 1996; 김태현, 1997), 활동의

공유가 낮아 노부부들이 여가활동을 각자 할 때 부부갈등의 요인이 되어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전길양 외, 1998)고 하였다.

노인 중에서도 연령이 낮은 집단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홍성희, 1998), 활동 정도가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적응수준이 높으며(서병숙, 1990), 부부의 공동 활동 참여는 서로 간 상호작용과 지지를 높여 결혼적응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애련과 한내창(1997)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노인들은 교양활동, 여성노인들은 가족 중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60대는 어울려 놀기와 부업활동을 많이 하고, 70대 이상 노년층은 여가적 집안일과 단순휴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 절대적인 여가시간은 증가하지만 적극적인 여가 참여나 여가활동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인 부부가족의 경우 교양활동을 많이 하며 자가용의 유무는 경제사정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여가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특히 집밖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 단독가구노인의 부부적응 특성을 분류하는 요인으로 부부친밀감, 성생활, 의사소통, 성역할, 가사노동분담, 의사결정, 갈등해결, 사회활동과 공유여가 등을 적용하여 유형화 시키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과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도시에 살고 있는 단독가구 노인부부의 부부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부부를 대상으로 12쌍을 선별하여 부부 공동

및 부부 각자의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1차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타에 자주 나오는 노인부부를 면담하였고, 2차적인 방법으로 1차 면담에 응했던 노부부가 소개를 해 준 노부부들을 만나 연구목적을 알리고 이해를 한 총 13쌍의 노부부들을 면접 조사하였다. 면담을 수락한 노부부 13쌍 중 아버님을 동거 부양하는 노부부 1쌍을 연구에서 제외하고 최종 총 12쌍의 노부부가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양한 연구참여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미리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소개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노인부부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단독가구 형태로 거주하되 부부 한 사람 이상이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결혼은 초혼이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사회활동이 가능한 신체적 능력을 지닌 부부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거나 은퇴한 노부부로 제한하였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를 선별하는데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편의 상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타를 이용하는 노인 중 단독가구로 살고 있는 노부부를 소개받았고, 부부들이 소개해 준 노부부 역시 같은 동네에 거주하거나 같은 모임의 회원들로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보통의 노인 부부라고 사료된다.

2) 조사방법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부부 모집은 대전광역시 유성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부부 4쌍(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6)과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에 위치한 솔도라도 노인복지센타를 이용하는 노부부 4쌍(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1), 그리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노부부 4쌍(사례1, 사례5, 사례10, 사례12)이다. 연구 참여자 노부부들은 1차와 2차 두 번으로 나누어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면담 전에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였고 면접 시 녹음기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1차면담에서는 연구자와 노부부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30분 정도 걸렸으며 본격적인 인터뷰의 내용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2차면담 때에는 1차면담 때 형성된 공감대로 인하여 곧바로 인터뷰를 하였으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

되었다. 어떤 부부들의 경우에는 2차 면담시간이 3시간까지 소요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1차면담 때에는 연구자가 처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과 성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자 2차면담 때는 1차면담 때와는 달리 솔직하고 적극적인 대화로 1차면담 때 하지 못했던 얘기들 까지 털어 놓기도 했으나 어떤 부부는 1차면담 때 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말하기도 하여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1차면담이 5월이었고 2차면담은 9월이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면담의 장소를 연구참여자와 협의하여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 결과 노인복지관이나 솔도라도(노인복지센터)의 조용한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노인복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4사례의 경우는 부부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인 집(거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1차면담이 끝난 후 2차 면담의 예상이 가능하다고 하자 노인들 스스로 언제라도 연락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면서 연락처를 연구자에게 남겨 주어 2차면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도중 화제를 자신의 사회적 성공담으로 돌리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남성노인과 인터뷰 도중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여성노인으로 인하여 인터뷰가 잠시 중단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다시 대화의 중심을 잡는 데에는 몇 분의 시간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또한 2차면담 시 시간 약속을 하고 연구참여자의 집으로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은 자녀의 방문으로 인터뷰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자녀는 본 연구에 자신의 부모가 참여하는 것을 알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대화가 잠시 동안 어색하게 다른 화제로 옮겨졌었으나 자녀가 자리를 뜬 후 곧바로 연속 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주제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연구자의 선 이해와 가정을 반추해 보는 과정을 통해 판단중지를 시작하였고, 자료수집이 완전해질 때까지 문헌고찰을 억제하였다.

생애사를 통한 연구는 생애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한 인간이 살아 온 인생역사, 사건, 경험 그리고 과정이 지니는 생애사적 의미를 탐구하였다. 인생발달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처해 있는 노인은 사회적 역할전환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에(김동배, 2003), 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노년기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개인이 살아 온 시대적 배경과 삶의 과정에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사고와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반추해 보았다. 즉, 노인이 자신이 살아 온 삶을 직접 이야기하게

하여 그의 경험을 연구자가 감정이입 기술을 통해 시간흐름에 따라 그들의 삶을 구성한 후, 상호주관성에 의해 다시 그들의 삶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살펴보았다(Schweppe, 2000). 생애사 연구는 연구자의 시각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접 경험한 개인의 시각에서 출발한다. 특히 노인은 생애의 시간적이고 내용적인 면에서 보다 풍부한 삶의 경험을 지니고 있고 시간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상호작용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생애발달을 보다 정확하고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동시대를 살아온 노인 생애 사례들을 구성하고 비교분석하면서 각 사례의 특수한 특성은 물론 동시대 노인의 보편적인 특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노인 자신에게는 현재까지의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는 중요한 계기로 삼기도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도시에 살고 있는 단독가구노인의 부부 적응을 알아보고 그 적응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자 함이므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적이고 심층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질적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면접법은 구조화된 면접법과는 다르게 제보자의 말로 표현된 대로의 생활과 경험, 상황에 대한 제보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자와 제보자간의 대면적 만남을 의미하며, 제보자의 마음속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자하고 제보자의 관점, 정의, 시각을 보고 범주화하는 방식이므로 면접자는 처음부터 대화를 구조화하거나 미리 면접내용을 제한하지 말아야하는 특성을 갖는다(Bogdan 외, 1984).

Strauss & Corbin(1998)에 의하면 자료수집, 분석, 그리고 최종적인 이론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특히 근거이론 방법에서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은 상호 교차하는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짐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즉 면담을 통해 자료가 모아지는 처음 순간부터 분석을 시작하며, 분석하는 동안 연구자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자료수집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재수집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Kvale,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를 살고 있는 단독가구 노부부의 부부 적응에 관한 기존의

특별한 이론이나 논리의 검증이라기보다는 노인 부부 둘이 살게 되면서 서로 적응하는 방법이 부부마다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특성에 따라 유형으로 나누어보려는 목적으로 접근하였다.

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각 부부에게 면담의 취지와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녹음기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함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처음부터 부부관계를 물으면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가족관계, 특히 손 자녀에 대한 얘기나 성인자녀에 관한 얘기, 결혼 형태, 지역사회 거주기간 등을 포함한 사회인구학적인 내용의 질문을 먼저 하여 연구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를 통한 자료 수집은 모든 범주가 이론적으로 포화될 때까지 계속됨으로 처음 자료수집에는 연구 질문을 개방적이고 넓은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단독가구로 부부가 살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왔는가?”, “달라진 환경에 부부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등 개방형, 비구조화 된 질문으로 시작하여 연구참여자가 가능한 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였고, 연구자는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남편이나 부인 한 쪽에서만 이야기를 진행할 경우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대화에 소극적인 배우자를 이야기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야기의 흐름에 어울리는 질문을 함으로써 부부 양쪽이 동등하게 연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면담방식은 부부가 함께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방법과 성적인 부분에서는 남편과 부인을 따로 만나 일대일 면담으로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을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타를 통해 소개를 받았으므로 대화하기 조용하고 연구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상담실을 이용하였고, 가정에서 면담을 원하는 노부부의 경우에는 연구참여자 집의 거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자료는 모두 녹음을 하였고 면담 중 특이한 사항은 기록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돌아오는 대로 연구참여자 부부에게 받은 인상과 느낌, 면접 시 부부의 태도 등을 메모하였다. 특히 1차면담 후에는 충분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다음 면담 시 질문 할 사항들을 기록해 두었다. 녹음한 면담내용은 연구자가 청취하면서 컴퓨터에 녹취, 저장하였고, 면담 동안 참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변화, 면담에 임하는 남편과 부인의 태도, 가족사항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연구자에게 떠오른 생각이나 방향 및 추후질문을 기록하였다. 또한 자료수집이 진행되면서 핵심범주와 분석을 확인하는데 초

점을 두고 한 참여부부로부터 도출된 분석결과가 다음 참여부부에게도 나타나는지 질문을 통해 비교하면서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trauss & Corbin(1998)에 의해 제시된 개방코딩에 따라 분석하였고 이 과정 중에 근거이론에서 활용하는 분석도구와 기법을 적용하였다.

1) 근거이론을 적용한 분석 과정

근거이론은 미시적 시각에 근거하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로서, 인간의 행동은 비록 협상과 재협상이라는 지속적인 과정이 있기는 하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근거이론방법은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어떤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이끌어낸 하나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식으로 연구 참여자의 표현 속에서 연구참여자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요사항이나 문제점을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한다(Strauss 외, 1990). 근거이론의 주요목적은 사람이나 사건, 현상들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있다(김영중, 1999).

근거이론 방법론에서 코딩작업은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화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자료로부터 이론이 정립되는 핵심과정이다. 이 자료의 분석과정은 이론을 검증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새롭고 치밀하고 풍부하게 설명이 가능한 이론으로 정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연구조사 방법에서 노인 부부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면접이나 관찰기법 등을 중요시 하였으며, 조사방법이나 절차들을 표준화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자의 의중에 미리 이론을 설정한 후 연구를 시작하지 않고 이론이 자료로부터 생성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자료의 미묘한 의미를 지각하여 개념적으로 밀도 있게 잘 통합된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 분석을 통해 내용을 이론적으로 표본추출하고 분석과정을 기록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이론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2) 개방코딩과정

개방코딩은 개념을 밝히고 그 속성과 차원을 자료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분석과정으로 자료에 대한 최초의 분석단계이다.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여 명명하고, 개념화 과정에서 개념 간 유사하거나 의미 상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 물체, 상호작용을 하위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범주화는 개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추상화가 필요하며 범주는 다른 범주와 비교하여 상호독립적임을 확인해야 하며 속성과 차원에 따라 발전하여야 한다(Strauss 외, 2001).

개방코딩의 접근방식은 한 줄 한줄 검토하여 분석해 나가는 행간 분석방법과 문장과 단락에서 끌어내어 문장이나 단락을 코딩할 수 있다. 또는 문서 전체를 가지고 관찰하고 지금까지의 분석을 보고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수집된 자료를 읽어가면서 가능한 연구자의 편견을 버리고 민감성을 가지고 자료에서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구문에 중점을 두고 연관되어지는 모든 가능한 의미를 개념으로 찾는 노력을 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를 통해 찾아낸 개념은 개념 간 속성과 관계를 비교하며 연구 참여자의 말이나 연구자의 창의적 개념으로 묶어 나갔다. 즉, 연구 참여자의 기술을 읽고 구나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한 다음 이를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고 구성된 의미를 상위 개념, 하위범주, 범주로 조직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각각의 사례에 해당하는 녹음된 내용을 전부 녹취한 후 한 줄씩 검토하여 부부가족 이후로 살게 된 이후의 변화와 부부간의 적응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장 형태로 옮겨 정리하여 유형화하였으며, 사례 별 필사본 내용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시에 사용한 언어를 그대로 기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노인부부가족으로 살면서 나타난 부부간의 변화, 부부간의 적응 방법, 적응하는 방법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 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범주들은 노부부들이 부부관계의 적응을 위한 내용 즉, 부부친밀감, 성생활, 성역할 태도, 의사결정, 의사소통 행동, 성인자녀와의 관계, 사회활동과 공유여가시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연구 참여 부부 별 분석을 통하여 부부관계의 특성을 발견하

고 그 발견된 특성을 토대로 유형을 구분한 후, 각 유형이 지닌 특성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4) 부부관계 유형화

일반적으로 유형화는 관찰 사례를 서술하는데 편리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며 이론을 개발시키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학 분야의 기초적인 과정으로 간주된다. 또한 유형화는 다수의 개별 사례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적은 수의 집락으로 축약하므로 연구된 현상을 체계화시킨다(Olson 외,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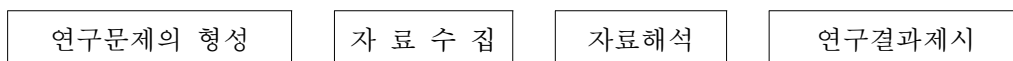
유형화의 잠재적 유용성은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유형화 혹은 분류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정보를 추출하여 종합하기 위한 연구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Weiner,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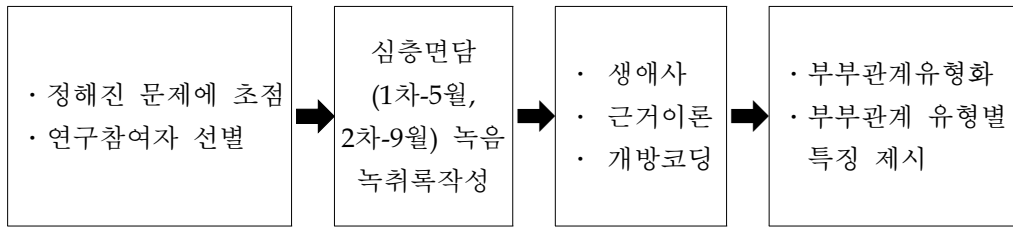
둘째, 부부관계 유형화 연구의 실제적인 이점은 임상가들에게 그들이 접하는 부부들 간의 차이를 패턴을 가지고 조직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다시 말해, 부부들의 관계 패턴에 기초하여 개별 부부들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줌으로써 임상 현장에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유형화 모델은 이론, 연구, 관찰 그리고 임상 활동에 공통적인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들 간의 차이를 줄이는 다리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관계에서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부부관계를 유형화하고, 유형화 된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 개인적 특성변수, 상호작용 특성변수 및 이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 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이론적 민감성을 얻고자 노년학 전문가와 오랜 경력의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그리고 노인복지전공 대학원생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토의 및 의견교환을 꾸준히 하였으며 서로의 의견들을 비교하고 종합하여 유형화하고자 애썼다.

<그림 1> 연구절차





IV.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는 도시노인부부가족 부부12쌍이다. 이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은 60대가 14명, 70대가 9명, 80대가 1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남성노인의 경우 60대가 6명, 70대는 5명, 80대는 1명이다. 여성 노인의 경우 60대가 8명, 70대는 4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69.5세로 남성노인의 평균연령은 71.1세, 여성노인의 평균연령은 67.8세로 나타났다. 사례 중 최연소 연령은 61세 여성노인이며 최고령 연령은 80세 남성노인이다. 부부12사례 중 10사례가 남편이 연상이며 2사례는 부인이 1살 연상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불교가 10명, 기독교가 6명, 천주교 2명, 유교 1명, 여호와의 증인이 1명, 무종교가 4명이다. 12사례 중 부부가 함께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는 8사례이고, 남편은 종교 활동을 하지 않지만 부인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2사례, 각자 종교가 다른 경우가 1사례, 부부 모두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1사례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초등학교 중퇴가 1명, 초등학교 졸업이 7명, 중학교 중퇴가 1명, 중학교 졸업이 3명, 고등학교 졸업이 5명, 대학교 중퇴가 1명, 대학교 졸업이 6명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1명, 중학교 졸업이 2명, 고등학교 졸업이 2명, 대학

교 중퇴가 1명, 대학교 졸업이 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노인은 초등학교 중퇴가 1명, 초등학교 졸업이 6명, 중학교 중퇴가 1명, 중학교 졸업이 1명, 고등학교 졸업이 3명으로 나타났다. 12사례 부부 모두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학력이 높았으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 보다 학력 수준이 높은 경우는 1사례도 없었다.

남편의 퇴직 전 직업은 공무원이 3명, 교사 2명, 직업군인 1명, 연구원 1명, 회사원 1명, 농업 2명, 자영업 1명이며 현재 자영업(세탁소)을 하고 있는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을 알아보면 200만원 이상이 2사례, 150만원 이상이 7사례, 100만원 이상이 1사례, 100만원 미만이 2사례로 나타났다. 월평균용돈은 20만원 정도가 2사례, 30만원 정도가 6사례, 40만원 정도가 2사례, 50만원 정도가 1사례, 70만원 정도가 1사례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월평균 용돈은 30만원 정도가 가장 많았다.

연구참여 부부의 소득유형을 알아보면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2사례, 연금과 저축이자로 생활하는 경우가 2사례, 연금이나 건물임대료 혹은 저축이자와 함께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를 합해 생활하는 경우가 3사례, 연금과 임대료를 합해 생활하는 경우가 1사례, 임대료만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1사례, 이자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1사례, 저축이자와 임대료로 생활하는 경우가 1사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1사례였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참여 부부 대부분이 연금이나 저축이자, 그리고 건물임대료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의 경제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으며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부의 경우에도 100% 자녀에게 의존을 하는 사례는 1사례도 없었다.

연구 참여자의 결혼생활기간을 보면 35-40년 이상이 2사례, 41-45년 이상이 3사례, 46-50년 이상이 5사례, 50년 이상이 2사례로, 결혼기간은 짧게는 37년에서 길게는 54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46.2년이었다.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중매가 11사례, 연애가 1사례로 결혼유형 중 중매가 대부분인 이유는 그 시대에 자유교제가 만연되어 있지 않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 참여 부부의 자녀수는 2남매에서부터 5남매를 둔 경우였으며, 무자녀 부부이거나 아들이 없는 경우는 1사례도 없었다. 자녀수가 2남매인 경우 1사례, 3남매가 4사례, 4남매가 4사례, 5남매가 1사례, 3남매인 경우가 2사례로 나타났으며, 연구참여 부부의 평균자녀수는 3.5명이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 부부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구 참여 부부들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이고 평범한 6,70대의 일반 노인들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고, 경제수준 또한 높은 편이어서 부부가 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노인부부들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참여 부부		연령	종교	학력	남편의 퇴직 전 직업	월소득 (만원)	월평균 용돈 (만원)	소득유형	결혼 생활 기간	결혼 유형	자녀수
1	남편	72	유교	대졸	초등교사	280	30	연금, 이자소득	45년	중매	1남2녀
	부인	67	불교	초졸	-						
2	남편	75	불교	초졸	직업군인	150	30	연금	44년	중매	2남1녀
	부인	66	불교	초등 중퇴	-						
3	남편	73	기독교	고졸	농업	150	20	이자소득	50년	중매	1남4녀
	부인	70	기독교	초졸	-						
4	남편	76	기독교	대졸	공무원	80	30	연금, 자녀의존	51년	중매	3남
	부인	71	기독교	초졸	-						
5	남편	65	기독교	대졸	연구원	150	30	이자소득, 임대소득	40년	연애	3남
	부인	63	기독교	고졸	-						
6	남편	73	불교	대학 중퇴	농업	60	40	임대소득	49년	중매	3남1녀
	부인	74	불교	중학 중퇴	-						
7	남편	68	무교	고졸	현재세탁소운영	150	40	자영소득	43년	중매	2남2녀
	부인	66	여호와 의증인	중졸	-						
8	남편	69	불교	중졸	자영업	150	20	임대소득, 자녀의존	49년	중매	2남2녀
	부인	67	불교	초졸	-						
9	남편	69	무	중졸	공무원	100	30	이자소득, 자녀의존	46년	중매	2남2녀
	부인	66	불교	초졸	-						
10	남편	68	무교	대졸	고교교장	270	50	연금, 이자소득	37년	중매	2남1녀
	부인	61	무교	고졸	-						
11	남편	80	천주교	대졸	회사원	150	70	연금, 임대소득	54년	중매	3남1녀
	부인	77	천주교	초졸	-						
12	남편	65	불교	대졸	공무원	160	30	연금	46년	중매	1남1녀
	부인	66	불교	고졸	-						

2) 참여자들의 생애특성

본 연구에 참여 한 12쌍의 부부는 가부장적 가족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결혼하여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며 살고 있다. 부부가 신혼 때부터 평생을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살아오다가 지금은 단독가구를 형성하여 살고 있기까지 상호작용하며 살아 온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부모 봉양의 경험, 남편의 은퇴, 빈둥우리 기간, 전통적인 결혼 관 등이 이들 부부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한국의 노년기 부부의 부부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생애사 연구가 적합하므로 이야기 식 면접(narrative interview)을 실시하여 그들의 이야기 형태의 특성과 생애 사건을 재구성하여 현재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① 부모 봉양

연구 참여부부 중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사례는 1, 4, 9사례이다. 사례1의 경우 남편이 대가족의 장남인 관계로 신혼 때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다가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 정작 부부만 남아 살기 시작한 것은 약 3년 정도 되었다. 부인은 젊어서부터 시부모님 눈치를 보고 살면서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야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다. 또한 자신의 감정표현을 하거나 의견을 주장 해 본 적이 없이 살았다. 부부는 부인의 그러한 참을성으로 인해 집안이 조용했던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부인은 지금도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혼자 가슴 속으로 삭히며 체념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부부가 싸우는 일이 거의 없다. 부인은 남편과 터놓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부부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주어 부부간의 대화는 자신들의 얘기보다는 남한테서 들은 얘기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 등을 하는 정도이다.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유교적인 사상이었고, 늘 부모님과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며 살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심적으로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져 마음이 허전하였다. 특히 부모님께서서는 풍부한 경험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매사 치밀한 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 주셨는데 그런 부모님을 잃고 나자 남편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쭙어 볼 대상이 없다는 점이 아쉽기만 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남편은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의 영향보다는 부모의 영향이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심적으로 위로움을 느끼죠. 의지했는데... 그리고 살다보니 그러네요.. 아무리 부모님이 연세가 높아도 나는 애들이니께 그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어떤 때는 어리광도 하고 어떤 때는 소소한 것까지도 말썽드리면 쌓인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박주시는데.. 참 나도 먹음만큼 먹었지랄 어떤 때는 어머니 아버지 계셨으면 실수하지 않게 그런 말썽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생긴 일 남편의 부모한테 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썽 여쭙 수도 없는거고... (사례1, 남편)

부인은 어른들과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생활의 모든 것을 시부모님 위주로 맞추어 살다 보니 남편과 둘이 있는 시간이 없었기에 부부간의 친밀감 형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부는 둘이 남게 된 후에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점이 많았다.

나이가 먹고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때는 아이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아니래도 우리가 너무 어른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도 고생 많이 하고 편안하게 한 번 못 살았어요. 시집오는 날부터.. 그리고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휴.. 재미나게 살자 자주 그런 생각이 나서 조금 속상한거 있어도 그냥.. 안 해요. 어른들하고 살다보니까 어디를 가면 가능개비다 그냥 어른들한테만 인사해 버릇해갖고 이 양반이. 그렇게 살아버릇해서 잘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말이 안 나가요... (사례1, 부인)

사례4의 경우는 남편이 외아들인 관계로 신혼 때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부부는 부모님 눈치 살피느라 부부싸움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었다. 부인은 화가 났어도 자신의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부인의 주장대로 키우지 못했으며, 모든 생활을 부모님의 의견에 맞추면서 평생을 살았다. 또한 부인은 남편과도 부부간의 감정을 주고받으며 살아 온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두 분이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한 후 둘이서만 살고 있는 요즘도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느낀다. 부인은 남편과 오래 살아온 연륜이 있어서인지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면 남편의 장점을 떠올리면서 성격이 자신과 정반대인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만며느리를 얻을 때 짬 남편은 잠깐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부인의 직감으로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가정의 위기가 오지는 않았고 부인의 이해로 덮어두었다.

요즘에 와서야 남편은 자신과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역경을 극복해온 부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젊은 사람들 흉내를 내며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부부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기보다는 부부가 늘그막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로 나아가는데 돕고 있는 정도이다.

젊었을 때 싸움을 못했어.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서. (부인) 우리는 싸움이 안 돼. 안 할 것도 아닌데... 곡은 내서 뭐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지... (남편) 남편이 뭐아들호 자라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부부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지.. (사례4, 부인)

부부는 젊어서부터 함께 해온 취미생활이 없어 부인은 주말농장 일이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을 찾으려하고, 남편은 건강관리를 위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운동을 하며 집에는 쉬기 위해 들어간다. 부부의 성생활은 부부가 모두 신체적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깔끔한 부인이 성관계를 원치 않아 오래 전부터 하지 않고 지낸다.

취미가 다르니까.. 한 때는 배드민턴을 같이 쳤는데 내가 잘 못 치니까 지금은 같이 안 해요. 복지관에도 내가 봉사를 하니까 먼저 집에서 나오지.. (사례4, 부인) 세 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으로 종일 바쁘게 지내요.. 집에는 쉬려나 들어가고... 우선 각자 바쁘게 지내요... (사례4, 남편)

사례 9는 남편이 7남매 중 장남이라 부부는 결혼하면서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며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부부가 둘이 남아 살게 된지는 5년 정도 되었다. 어른들과 함께 살았던 대가족인 집에는 늘 손님이나 친척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남편은 지금도 시간만 나면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에 농장 일을 하며 주위의 일가친척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가족 장남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인은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사교성이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시동생들이나 친척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 그러나 부부는 공유하는 취미를 가질만한 여유나 대화를 통한 감정적 교류가 없었으므로 평소에 둘이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도 좋은 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현재 부부만이 있어도 서로의 감정은 무덤덤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할 얘기도 딱히 없다. 남편이 은퇴 전부터 자가운전을 하며 생활해 왔지만 자가

용은 주로 남편의 이동용으로만 쓸 뿐 부부만의 여가나 정서적인 시간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양반이 친남매의 딸이예요. 나는 일찍 하다 늙었어. 일년이면 공짜로 넘어가는 딸이 없어.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부모님 눈치 보느라 내가 좋다고 설치고 다니질 못했어. 지금 시대와는 틀리게 살았어. 그냥 그렇게 세월이 다 갔어. 지금은 마음은 한갓인데 우리 둘이 살아도 좋은 죽도 모르고 그냥 그래요..(부인) 옛날에는 부모 모시고 자식들 키우고 사느라고 마음의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사례9, 남편)

남편은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을 잘 안하는 성격으로 중학교 때 배운 유교의 철학이 몸에 배어 있어 매사에 신중한테 장남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영향으로 남편은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강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밀고 나가야 한다. 부인은 그러한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남편을 이길 생각은 없다. 남편은 지금도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으며 원하는 바를 표현하지 않는데 부인은 그런 남편의 태도가 서운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임에도 부부는 서로 반 밖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성생활을 즐기지 못했으며, 의무감에 한방을 쓰지만 성생활을 하지 않으며 애정표현도 해본 적이 없어 어색하므로 하지 않는다. 그래도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남편을 부인은 믿음직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봉양하며 결혼생활을 해 온 부부의 경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사례1의 경우는 부부가 부모 중심의 결혼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부부의 친밀감이 전혀 형성된 적이 없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 뿐 아니라 부부가 의무적인 성생활을 해 오다가 그만 둔지도 오래 되었다. 또한 함께 공유하는 취미나 여가활동도 없고 부부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가사의 결정은 남편이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며 살고 있다. 사례4와 9의 경우에는 신혼 때부터 부모님 봉양을 평생 했지만 부부가 함께 하는 일이 많아 외형적으로는 친밀해 보인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 형식적인 대화만을 나누며 살고 있다. 성생활은 부부의 애정이나 친밀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무감에서 해오다가 현재는 그만 둔지 오래 되었다. 남편은 긴 세월 동안 모진 역경을 이기고 자신만을 믿고 함께 살아 준 부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부인은 남편에게

서운하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변함없는 태도의 남편을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의지하며 살고 있기에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익숙하고 편안한 결혼생활을 하며 살고 있다.

② 빈 등우리 기간

빈 등우리 시기는 자녀의 결혼이나 직장으로 인하여 자녀를 모두 떠나보내고 가정에는 오직 부부만으로 남편과 아내로서의 상호작용을 하는 부부가족을 이루게 된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에는 자녀 양육의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난 부부가 각자의 독립된 삶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부부만 남게 된 이후의 부부관계는 부부간에 적응을 시도하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긴 빈 등우리기를 보낸 노인부부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부부의 경우보다 부부관계에서의 적응이 잘 되어 있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부부의 빈 등우리기 기간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례 1, 5, 9, 10의 사례는 빈 등우리 기간이 3-9년으로 비교적 빈 등우리시기가 길지 않았고, 사례 2, 6, 8의 경우에는 빈 등우리 기간이 13-20년으로 비교적 긴 빈 등우리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부부가족으로 살게 되면서 부부는 하루의 일과를 함께 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배우자의 성격이나 단점들이 나타나게 되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내용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았을 때는 가족들과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지만, 둘이 있고 보니 부부간의 대화도 잘 되지 않아 부부사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결국에는 부인이 삭히고 체념하는 부정적인 갈등해결의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애들 키우는 것 때문에 몰랐다가...애들 셋을 키우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않... 운전할 때도 욱을 하고 그런 게 짜증이 나요. 그런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여자는 껄끄럽하고 리팍스러워서 나를 볶아챤다는 식으로 생각이 드나봐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같이 있다 보니까.. (사례10, 부인)

애들이 있을 때는 애들 어우려 가지고 바로 많이 하게 되는데, 바로 많이 하고 나면 풀어진 때가 있는데 애들 어우려 가지고... 근데 단둥이만 있으니까 굉장히 나쁘더라고... 속상한거 있어도 나이가 먹으니까 많이 안 해요.. 지금 부부만 살면서 부부간에 젊었을 때보다 부부간 사이에 대화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조금 멀어졌어요. (사례1, 부인)

그러나 빈 등우리 시기의 부부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자녀들이 떠난 후 부부 둘만의 시간이 증가하게 되므로 부부는 서로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부부간의 적응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부부간의 적응과정을 통하여 부부는 두 사람 간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부부 친밀감이 증가될 수 있다. 사례 2, 6, 8, 12의 경우 긴 빈 등우리 기간 동안 서로에게 적응을 하여 부부 둘만의 생활이 안정되고 변함없는 애정을 확인하면서 친밀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일이 오히려 불편을 느낄 만큼 부부의 결혼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둘이 산지 20년은 되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거 많이 못 느꼈을거야. 애들 수발을 하다가 애들 수발이 끝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여. 내가 일이 죽어드니까. 젊어서는 부딪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 양반이 직업군인을 하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 보다 나가 있을 때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같이 행동하니까 자꾸 부딪치게 되는데 이제는 부딪치는 일도 맞성이 되었어요. 근데도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요... (사례2, 부인)

둘이랑 살게 된 건 20년 가까이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한번도 안 싸웠는데 여기(복지관) 댕기면서 싸웠어요. 우리 집 양반이 나랑 알았거든? 그런데 젊은 여자 노인들이 남편을 보고 잘 생겼다는 둥, 젊어서는 멋있겠다는 둥 하니까 험쓸더라고.. 그래서 복지관을 관렸어요.. 여자 눈에 영 눈꼴시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질투여, 질투... (사례6, 부인)

둘이랑 있을 때가 좋아, 큰 애들부터 결혼하자마자 내 놓았어요, 정신이 없어.. 애들이 오면 반갑기는 한데.. 같이 오래 시간을 지내면 싫잖아서 나는 시내로 나가요. (남편) 지금도 언제 온다고 해서 기다리다 안 오면 핸드폰하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들어오고.. 그거 남자들 비위만 잘 맞추면 그게 행복한거여. 둘이 있는데 서로 잘 해야지.. (사례8, 부인)

빈둥우리기 기간의 차이로 부부의 적응 및 부부친밀감을 살펴 본 결과, 빈 둥우리기가 짧은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둘만이 살아가면서 서로의 배우자에게 드러난 성격이나 습관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부부의 갈등관계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던 자녀가 없자 부인은 갈등의 해결방법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부부가족의 적응과정에서 과도기 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 둥우리기가 긴 부부의 경우에는 빈둥우리기를 통하여 부부의 적응이 잘 이루어져 부부간의 친밀감이 증대되었고 둘만의 생활을 즐기고 있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③ 은퇴

자녀들이 떠나가고 노동현장으로부터 자의 혹은 타의로 은퇴를 하게 되면 가정경제 상황이나 부부역할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은퇴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변화, 심리적 적응의 문제 등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부모역할에서 벗어나고 직업역할에서 벗어난 부부가 상대방 서로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돌리게 된다.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의 증가는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서로에게 관심과 친밀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반면에 부부의 불일치로 긴장과 갈등의 기회도 많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 달라지는 경제적 문제는 부부에게 잠재적 긴장의 근원으로 나타난다. 부부가 은퇴 이후의 소득감소에 대한 변화에 확실한 대비를 하지 못했을 경우 특히 부부관계에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 쉽다.

사례 5와 10의 경우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례 5의 경우, 남편의 은퇴 후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부인의 불만이 높아졌으며 남편 또한 은퇴 후의 생활에서 좌절과 당혹감을 가져와 부부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사례 10의 경우, 남편의 은퇴 후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를 원하는 부인과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남편과의 불일치가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부부가 외식을 하거나 남편과 둘이 외출을 할 때나 대화할 때, 부인은 은퇴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였다. 노년기에 배우자의 은퇴로 인한 접촉의 증가는 새로운 친밀감

을 형성해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와 부부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로 나타났다.

퇴직하고 나니까 돈 문제로 갈등이 많더라구요. 수입이 천지차이지요.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부딪쳐요. 그래서 퇴직 후 5,6년이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부인) 직장생활 할 때는 솔직히 앞만 보고 살았어요.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쫓겨먹하듯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 것도 아니랄 땀예요.. (사례5, 남편)

퇴직하고 나면.. 그래도 퇴직하고 나면 자기가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결혼할 때 상상을 한다든가 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꿈하고 실제로 하고 특이더라구요. 꿈하고는 천지 차이예요...동이 나가 뭘 먹고 오면 나는 속이 안 좋아요. 저 사람이 왜 속이 안 좋은가 같은 말이라도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아 붙이는거죠. 서로 아프면 약도 챙겨주고.. 나는 이이한테 말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골내요. 말 한마디에 정이 붙고 떨어지는 거 아니예요? (사례10, 부인)

의사소통이 안 되고 정이 있다 없다 왜 이렇게 변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대로이지.. 퇴직했다고 달라졌다고 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집사람한테 잘해주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잘 해주라는건지 .. (사례10, 남편)

은퇴는 부부의 갈등뿐 아니라 권력관계의 변화도 가져왔다. 은퇴 전에는 부부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남편의 의견을 많이 따랐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부인의 의견을 주로 따르거나 부부가 상의를 하더라도 결국은 부인의 의견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은퇴 전에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었던 남편이 은퇴 후에는 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인에게 많은 결정권을 주며 부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권력의 이동을 살펴볼 수 있다.

돈 관리는 내가 다 해요.. (부인) 은퇴하고 경제권이 완전히 이 사람에게로 가 있어요. 멀고 멀긴 거지..복잡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사례12, 남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따라가야지. 의견을 내어서 같이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지. 그런데 결국엔 이 사람 의견을 따르게 되더라고... (사례4, 남편)

노년기에 이르면 부인은 가정일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부인의 욕구는 취미생활이나 여럿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만족감을 느끼는데 남편이 은퇴하고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이전부터 해 오던 부인의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편은 은퇴 후 자신이 가사일을 못하기 때문에 부인에게 의존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이유가 부인의 사회활동을 그만 두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사냥은 서예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한중교류전에도 참가하고 많이 해요. 일요일에는 교회 같이 나가고 집사냥은 동학구연하러 가고.. 나보다는 많이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내가 집에 있을 확률이 많지요... 뺨은 내가 찾아 먹어야지요, 배고프면 내가 해야지 별 수 없잖아요... (사례5, 남편)

독이 사니까 조금 험하게 되고 자유로워졌어요. 자원봉사를 해요. 여성회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거즈 접는 일을 해요. 봉사를 하면 얻어지는 게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봉사를 한다는 것이 좋아요... (부인) 뺨은 해놓고 나가니까 차려서 먹기는 하지요... (사례12, 남편)

남편의 은퇴가 노년기 부부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은퇴에 따른 경제적 수입의 감소와 가정에서의 역할변화, 심리적 적응의 문제가 부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전에는 가사결정권이 남편에게 편중되어 있었으나 남편의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주로 부인이 함으로써 부부간의 권력이동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은퇴 후 길어진 여가시간을 부부가 함께 공유하기 보다는 부인은 이전부터 해 오던 취미생활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은퇴가 부인의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전통적인 결혼관

전통적인 가치를 보유해왔던 남편들은 결혼생활에서 전통적인 가치와 태도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성역할의 변화에 저항한다. 전통적인 성역할의 태도를 지니는 남편들은 낮은 수준의 부부관계 만족을 경험한다. 사례1 남편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권위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려고 하며 부인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와 주기를 기대하며 산다. 또한 노년기 성은 단순히 육체적 측면 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측면의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능 변화에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적인 지식 역시 성 만족에 영향을 주는데 성에 대한 생리적 이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부인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근데 성직이 이 사람이 자존심이 강해유. 고집에 세고 프라이버시가 강해가지고서 인만큼 이내두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면 잘못된 생각 안하고 성직부터 내는 사람이거든.. (부인)
내가 잘 못했다기보다 내 생각이 백프로 옳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주어야지유.. (남편)

부부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일심동체라는 말도 특진 말은 아니예유. 그런데 부부는 혈연이 다르잖아유. 혈연이 다른데 찡... 하나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살아보든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찡을 인자에 사는거예유.. (사례1, 남편)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전립선 비대증이 따라오는거유. 그러니까 어려운거지. 그건 늙으면 누구나 다 오는 것이고.. 그걸 의사들은 나이가 관계 없다는데 그거 자주 해서 뭐해유? 포기하고 내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예유... (사례1, 남편)

사례11 남편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평등한 관계와 애정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에서 남성중심적인 사고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편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할 뿐 아니라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부부간의 배려나 존중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의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편은 부인에게 일방적인 순종과 상하의 수직관계를 요구하므로 부인은 인내와 헌신으로 살아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생업날? 뭐 아무것도 없어유. 봉투도 없고 뭐 하다못해 팬티하나도 없어유. 내가 장사할 때는유, 저녁때가 되면 와서 굶고씩 털어가서 내가 장보게 돈 줘 줘유 하면, 얼마 줘? 만원 줘? 이만원? 하면 쓰다가 낡으면 주면되지 얼마 주느냐고.. 더럽고 치사하네 그랬어유. 내가 바보여, 완전히 바보여. 자기는 자기대로 살고 나는 애들 데리고 고생을 해서, 재미나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유... (사례11, 부인)

이 사람이 공을 부리면 말을 안 해유. 그러면 내가 딸한테 그대유, 굶보다는 여우가 낫다

고... (남편) 내가 잘 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말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런 게 당연하지... (사례11, 부인)

노년기에 부부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서 오는 생활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경우가 많다. 갈등상황에서 부부가 체념이나 회피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거나 비난이나 부정적인 감정노출 등의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결혼의 질이 낮아져 부부의 결혼만족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편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할 경우, 남편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순종을 요구받게 되므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부인과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남편의 변화가 없는 한 결혼생활의 질은 낮고, 부인이 주로 참고 견디는 헌신과 희생을 강요받게 되어 부부의 적응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부부관계의 특성

연구에 참여한 12부부의 특성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부부가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난 후 둘만이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적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부부 관계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각 부부들 나름대로 서로 적응하는데 부부마다의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부들이 나타낸 특성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95개의 상위 개념, 19개의 하위 범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 근거자료의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부부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해 줌 · 아플 때 약을 사다 줌 · 병원에 다녀와도 무관심함 · 부인 부재 시 눈물로 지냄 · 아파도 도움이 안 됨
	인지적 친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이만 있을 때가 좋음 · 단 둘이 있어도 좋은 걸 모름 · 예전만 못한 게 억울함 · 부부가 같이 죽는 게 마음이 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름
	애정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마다 행동으로 표현함 · 표현은 안 해도 마음으로 통함 · 잘 해도 안 받아줌 · 처음부터 안하게 되어 못 함 · 남세스러워서 못 함
부부개념	배우자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는 동고동락한 친구 · 부부는 똑같이 행동하는 동반자 · 부부는 부딪히면 깨지는 철길 · 남편은 큰 아들 · 부부는 만날 수 없는 평행선
	배우자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서로 챙겨줌 · 부부는 서로 알아야 하는 존재임 · 배려받기만을 원함 · 배려를 해주어야만 함 · 챙겨주는 게 없음
	다시 태어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태어나도 같이 살고 싶음 · 생각해 본 적 없음 · 사죄하고 다시 같이 살고 싶음 · 정반대의 사람과 살고 싶음 ·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음
성생활	성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꼭 한방을 사용함 · 부인이 별로 원치 않음 · 노년기 성에 대해 좋게 생각함 · 노년기 성은 징그러움 · 노년기에 부인은 있으나마나 함
	성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생활은 마음먹기에 달림 · 남편이 자제를 함 · 싸우다 보니 마음이 멀어짐 · 아직도 욕구가 있는 게 이상함 · 오래 참다보면 생각이 없어짐
	성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많이 할수록 좋음 · 부인이 받아주지 않아 못하게 됨 · 횡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즐김 · 성관계 없어도 서로 아끼고 살아감 · 성관계 안 한지 오래 됨
	성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서로 자유롭게 즐김 · 남편이 표현하면 들어만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실 좋은 다른 부부가 부러움 · 성적표현을 할 필요를 못 느낌 · 젊어서부터 해 본 적 없음
의사소통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 대화를 많이 함 · 꼭 필요한 말만 함 · 감정을 다 퍼부어야 속이 시원함 · 한 쪽에서 말을 걸어야만 가능함 · 대화기술이 부족함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솔직하게 다 얘기함 · 형식적인 대화만 나눔 ·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함 · 무슨 얘기를 할 것까지 다 알고 있음 · 속엿 말을 해 본적이 없음
성역할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역할 구분이 없음 · 옛날 배운 대로 함 ·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임 · 성역할이 바뀜 · 성역할 구분이 확실함
	가사노동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 줌 · 부인이 요청하면 도와 줌 · 남편이 필요 시 마지못해 함 · 도와달라고 해도 하지 않음 · 부인이 전적으로 혼자 다 함
의사결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늘 상의함 · 한쪽에서 결정하면 따라감 · 은퇴 후 주도권이 바뀜 · 부인 손에 달림 ·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함
갈등해결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냈다가도 금방 풀림 · 화 푸는 시간이 짧아짐 · 서로 대응해서 풀어야 함 · 소리를 질러서 풀게 됨 · 화가 나도 속으로 삭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를 해서 풀게 됨 · 참고 이해하며 풀게 됨 · 싸움을 걸어서라도 풀어야 함 · 갈등상황을 회피함 · 부인이 종교에 의지함
사회활동과 공유여가	취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 같이 하니 행복함 · 취미활동을 꾸준히 해 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의 돌파구로 취미활동을 함 · 남편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함 · 남편 혼자서만 즐김
	공유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매일 같이 즐김 · 여건에 따라 달라짐 · 같이 하는 활동이 없어 안타까움 · 부인을 따라 다님 · 각자 여가를 즐김

1) 부부 친밀감

Moss와 Schwebel(1993)은 친밀감이란 “상호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인 밀접함과 헌신의 정도”라고 정의한다. 즉, 부부는 각자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의 결점까지도 수용하는 상호공유적인 인지적,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부친밀감 개념은 부부관계의 상호 고유적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결혼만족도와 같은 개인적 평가에 주안점을 두는 개념보다 관계적 속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개념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부친밀감은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 복합적 상위의 개념으로 애정이나 헌신, 성적 욕구와 같은 개념들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과 인지적 친밀감 그리고 애정표현으로 나누어 부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① 정서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를 의미한다. 부부마다 정서적 친밀감의 수준이 다름을 보였는데 노년기 이전부터 형성해온 애정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인이 병원에 입원 하자, 남편이 정성을 다해 간병을 하며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하였고, 부인이 아플 때 남편이 약을 사다주며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인이 병원에 다녀와도 남편은 부인의 건강상태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부인에게 의지하며 사는 남편은 부인이 아파서 집을 떠나 있으면 낙담하여 아무 것도 못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혹은 부부는 아파도 마음뿐이

지 배우자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해 줌)

내가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아저씨가 내 간병을 해줬어요. 이 양반이 보조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지고... 병원에 소문이 다 났어요. 지극정성이라고... 그런데 취약부지 병이 낫 것 같다고 작은 아들이 간병인을 써 줬어요... (사례8, 부인)

(아플 때 약을 사다 줌)

평소엔 딸 한번 없어도 내가 몹이 조금 안 좋고 그럴 때 이 양반이 약도 사다 주고 할 때가 행복했어요.. (사례12, 부인)

(병원에 다녀와도 무관심함)

내가 병원을 다녀와도 어디가 어떠냐하고 한번은 안 물어봐요. 병원에 가서 보면 남편들하고 다 많이들 오잖아요. 가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챙겨주고 하는거... 갔다 와서도 딸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한번 싹 물어보고 끝나면 자기 복일 보느라고 딸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대 가지고 저도 싫은거예요... (사례10, 부인)

(부인 부재 시 눈물로 지냄)

내가 병원에 한 달 가 있는 동안 동네 사람들 얘기가 아저씨가 눈물로 살더라요, 동네 사람들이 볼쌍해서 못 보겠더라요. (사례7, 부인)

내가 딸네 집에 갈 사이 아저씨 혼자 3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웬편서 날마다 술로 보냈더라구요, 집에 있는 술을 다 먹었어요... (사례3, 부인)

(아파도 도움이 안 됨)

건강관리도 각자 해요.. 아파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의지해서 도맡아주는거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만 와서 걱정이 되는거지 식지 도움은 없는거예요. (사례1, 남편)

② 인지적 친밀감

인지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상대방에 관해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인지적 친밀감은 자녀들의 독립 이후 부부만이 남아 둘이 생활하게 되

면서 느끼는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부부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 둘이만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며 둘만의 시간을 선호하는 부부가 있으며, 둘이 있어도 좋은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부의 갈등으로 오히려 전보다 부부친밀감이 낮아진 경우도 있고, 부인이 남편의 의존으로 인해 부담을 갖는 경우와 남편은 부인에게 전혀 관심이나 배려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둘이만 있을 때가 좋음)

둘이만 있을 때가 좋아. 애들이 오면 반갑기는 해도 정신이 없어 빨리 가라고 하죠...
(사례8, 남편)

너무 둘이만 살아버릇해 가지고 애들하고 살려면 못 살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요즘이 가장 행복하죠... (사례2, 부인)

(단 둘이 있어도 좋은 걸 모름)

둘이 산다고 달라진 것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예전부터 우리는 부모님 눈치 보느라 좋은 시절을 모르고 살았으니까...지금은 단둘이 있어도 좋은 걸 모르겠어요... (사례9, 부인)

(예전만 못한 게 억울함)

직장 다닐 때는 받들다시피 했잖아요? 저녁에는 피곤하게 들어오니까 싸움 일이 있어도 재워야 하고...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다 누적되어 있는 게 똥축되어 싸우는거예요.. 그 때 그랬다고... 그래도 약을 쓰며 싸우면서도 가까워졌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냥이 멸어진 게, 예전만 못한 게 억울하죠...(부인)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집을 주위에 친구들이 볼 때는 아주 그런 집 없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는 잘 하고 하니까...(사례5, 남편)

(부부가 같이 죽는 게 마음이 편함)

우리는 그래요. 나없으면 우리 아저씨 누가 챙겨요? ... 먼저 죽지도 말고, 만약에 죽게 되면 같이 죽자고.. 이런 말을 의사한테 했다가 혼났어요, 그런 경우는 재앙이나 교통사고 때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례7, 부인)

(부인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름)

작년 결혼기념일에, 결혼 54년 만에 처음으로 애들 모아 놓고 다 같이 밥 먹자고 며칠 전부터 부르더라고... 마음이 변하면 죽는다더니 뭐가 잘 못 될라고 그러나보다... 생일도 모르고 살아서 그깟 두라고 했더니 돈 조금하고 수고했다는 편지를 써서 주더라고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사례11, 부인)

③ 애정표현

애정표현은 부부관계에 있어 배우자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이나 느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애정표현은 말로 표현 될 수도 있고, 감정 또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부금실이 좋은 경우 평소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대화를 통해 감정의 표현에 어려움이 없어 애정표현을 스스럼없이 하면서 생활을 하므로 부부관계의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며 권위적인 가족환경에서 부부가 살아왔거나 가부장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데, 애정표현을 하는 것은 어른답지 못한 일이거나 창피한 행동이라고 여겼다. 또한 부부가 애정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해 오면서 터득한 느낌과 눈치로 서로에 대한 기분이나 감정을 알고 있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면서 지내는 관계이므로 남편이 부인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해도 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무시하여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마다 행동으로 표현함)

애정표현을 너무 잘해요. 이걸 자양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부부금실이 우리만큼 좋은 부부는 없어... (남편) (애정표현을) 너무 하지. 행동으로 하지. (웃음) 나한테 아양을 떠냐... 오히려 내가 낚자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낚자가 나한테 애교를 띄어. 솔직하니 많이 지 나는 남편을 끌어안아 본적이 없는데 남편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안아보려고 그대요... (사례2, 부인)

(표현은 안 해도 마음으로 통함)

애정표현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웃고, 설거지도 해주고 하지 뭐.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알지.... (사례4, 남편)

이 양반이 애정표현 같은 거 생전 안 해요... 나도 안 하지..(부인) 마음속에 있는 거지..어떻게 해... 둘 다 나이 먹어서...마음으로 이십전십이지... (사례9, 남편)

(갈해도 안 받아줌)

성격이 싹싹해서 그렇게 잘 해요. 나는 잘 안 하고... 나는 똑똑하구요... (부인)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도 사랑한다 소리 자기 딸로 한 적 없으거든요.. 이 사람이 경상도 여자가 되가지고 나보다 더 무뚝뚝해요. 심지어는 나를 업청시리 사랑합니다.... (사례5, 남편)

(처음부터 안 하게 되어 못함)

안 해요, 생전. 이제까지 평생음... 결혼 한지 43년 됐는데 여보소리, 당신소리 한 번도 못 해요. 처음부터 했어야 했는데 입에 안 붙어서...(남편) 여행을 가서 가이드가 지금까지 못했던 얘기 해보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꼭 한다고 하더니 그 말을 못하고 자기가 울어요. 그 정도여. (사례7, 부인)

(남세스러워서 못 함)

애정표현은 남자가 유새 잘 안 해요, 애들처럼 그렇게는 못해요, 남세스러워서. (사례1, 남편)

솔직히 여자들은 옛날에 있던 양근이 안 없어져요. 변덕스럽게 남편이 애정표현을 해도 그것도 그냥 그대요... (사례11, 부인)

2) 부부개념

부부개념은 부부가 서로의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한 것으로써 부부관계를 지속해오면서 배우자에 대해 서로 느끼는 감정을 정리한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배우자를 배려하는 내용,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를 살펴보았다.

① 배우자 인식

부부는 오랜 세월을 지속적으로 맺어 온 관계의 특성에 따라 변함없이 오래된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힘이기도 하였다. 인생

을 살아오면서 함께 어려운 시간과 경험을 극복한 든든한 동반자의 느낌이기도 하며, 일체를 보기 위해 싸우며 갈등을 했지만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합쳐 질 수 없는 거리가 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심리. 정서적으로 한 쪽의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는 부모자녀와 같은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긴 세월을 함께 살며 한 방향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근본과 피가 다르고 성장배경이 달라 결코 합쳐질 수 없는 평행선으로 살아가는 관계로 여기기도 하였다.

(부부는 동고동락한 친구)

친구관계아냐? 낯 그런 거 같애. 이제 늙어갈수록 좋을 때는 서로 좋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낯을 하고 대화하고 같이 나누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조금만 틀리면 못 사는 거거든요... (남편) 남편은 집안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지... (사례2, 부인)

부부생활을 49년 했는데 부부는 친구 같아요, 친구... 부부는 서로 간에 무조건 내 편이지 그거 없으면 되겠어요? (남편) 나는 저 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례8, 부인)

남편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같어... (부인) 같이 부부가 나이가 드니까 같이 놓고, 같이 다니고 하니까 부부간 동고동락하는 관계지. 서로가 존중해야 돼. 서로 아끼고... (사례6, 남편)

(부부는 똑같이 행동하는 동반자)

결혼 한지 40년도 넘었는데 살아보니까 부부는 동반자예요, 동반자.. 똑같이 행동하니까 동반자지... (사례12, 남편)

(부부는 부딪히면 깨지는 철길)

철길과 같은 거예요. 동행하는 입장인데 부딪치면 부딪칠수록 깨지기 때문에 간격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삐그러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사례5, 부인)

(남편은 큰 아들)

우리 아저씨가 동네 통장 일을 37년 했는데 우리 아저씨는 여벌이고 내가 다 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저씨는 한 달도 못살아요. 우리 아저씨는 아들 같아요, 큰아들... (사례7, 부인)

딸집에 있다가도 할아버지가 혼자 집에 못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의지를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례3, 부인)

(부부는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결국 부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평행선으로 가는 사인데.. 목표는 같어요. 근데 둘이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간격을 두고 가는 게 부부예요. 거 참, 환경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물론 같이 커 나왔지만 사상이 기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정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틀려가지고서 그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거 얘기를 하면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사례1, 남편)

② 배우자 배려

부부가 서로 배우자에게 배려하는 정도를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과 부부적응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노년기에 들어 이제는 부부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서로 극진하게 배려하는 부부가 있는가하면, 부부가 서로 원하는 바를 알아야 서로 배려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하였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배려받기만을 원하거나 배려해 주어야만 하는 경우의 부부는 불만이 쌓이게 되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오랫동안 배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념의 상태로 나타났으며 부부간의 존중감이 낮음을 보였다.

(부부가 서로 챙겨줌)

뭐든지 나를 챙겨줄라고 하고, 먹는 것도 그렇고.. 내가 입이 짧아서 가져 먹는데 내 입맛에 맞게 잘 해 줘요.... 그럴 때 행복하죠...(남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잉꼬부부라고 해요. 남편이 잘 해주니까 남편이 나 아픈 줄을 몰라요. 내가 당뇨가 29년 되었는데 많이 편하고 잘해 주니까 살아요. 친구들 칭찬이 대단하죠.. 어쩐 그렇게 잘 해 주냐고... 서로 잘 해야지, 혼자만 잘해서도 안돼. 상대방에서도 잘 하고.. (사례8, 부인)

이 사람이 성질 하나만 나쁜거지 나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 해요. 남편이 보면 저런 남자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데 그런 사람하고도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 온거죠... (사례2, 부인)

(부부는 서로 알아야 하는 존재임)

애들하고 살 때는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빠서...지금이 좋죠. 서로가 알아주고, 나이도 먹고, 서로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례12, 부인)

서로 위해주며 북받치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저 양반은 뭘 원하는지 말을 잘 안 해서 서운해. 애들은 나가 사니께 이런 소소한 것들을 모르잖아요.. (사례9, 부인)

(배려받기만을 원함)

어디 놀러가서도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데 내가 배려를 해야 하니까 가기가 싫어요. 신경 쓰이고... 혼자 딱 좋아가지고 다니니까... 어쩔 때는 심지어 아는 분이 같이 다니지 왜 혼자 다니냐는 말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사례10, 부인)

(배려를 해 주어야만 함)

내가 없으면 우리 아저씨는 못 살아요. 내가 접 때 스티커다리를 사 줬더니 조깅을 못해서 이런 걸 샀다고 성질을 내고 못 쓰길래, 내가 조깅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거다 시범을 보이고 가르쳐 줬더니 그 때서야 듣고 나가는 거예요, 세탁소호... (사례7, 부인)

(챙겨주는 게 없음)

둘이 길을 갈 때도 남편이 저만치 앞서면 나는 뒤에서 조용히 뒤따라가요. 같이 땀기는 것도 차이를 두고 다녔는데...나는 평생을 자존심 다 죽이고 살았지... (사례11, 부인)

부부생활이라는 것이 나이를 먹다 보면 내가 과거에 잘 못 해준거, 안쓰러운 거, 못 한거 이런 것이 가뿐 생각나는데 이제는 능력이 없어.. (사례1, 남편)

③ 다시 태어나면

부부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부부의 친밀감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면 더 잘 해주고 같이 잘 살고 싶다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 살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편은 지금의 부인과 다시 만나 살고 싶어 하였으나 부인은 원치 않는 경우도 있으며, 지금의 배우자와 정반대의 사람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마다 혹은 남편과 부인의 생각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태어나도 같이 살고 싶음)

여자는 안해잖아, 안에서 뜨는 해니까 잘해줘야지...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이이가 나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하니 그렇게 딱하더라고. 안쓰럽고... 죽어서랑 행복하게 내가 남자될테니 당신일랑 여자돼요. 그래서 내가 호강시켜줄게요.. 다시 재미나게 생시다, 그랬어요.. (사례6, 부인)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양반하고 같이 살고 싶어. 이 양반 마음 쓰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딱한 사람이 없어요.. (부인) 나도 그렇지... (사례8, 남편)

나는 부인이 (죽어서) 다른 데로 가도 찾아갈거여... (사례2, 남편)

(생각해 본 적 없음)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야지, 안 그래요?..(남편)...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례12, 부인)

(사죄하고 다시 같이 살고 싶음)

저 양반은 죽어서까지 나 만나서 사죄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왜 여기서 싸우면서 죽어서는 고맙 만나야지요.... (사례5, 부인)

(정반대의 사람과 살고 싶음)

저런 사람하고 살아봤으니 다시 태어나면 우악부악한 사람하고 살아봐야죠. 이런 사람하고 왜 또 같이 살어요?... (사례7, 부인)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음)

그야 해 본 사람하고 또 살아요? 안 살아본 사람하고 살아야지.. (남편)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다 꼭 짚어서 얘기,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사례1, 부인)

3) 성생활

성생활은 부부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노년기의 성은 단순히 육체적 접촉을 통한 쾌락을 위한 것을 넘어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부부의 친밀감을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노년기의 성은 직접적인 성적 욕구충족과 함께 위로와 위안이라는 애정적이며 정신적인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부부의 노년기 성에 대해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개념과 욕구, 빈도 그리고 성생활에 활력이 되고 있는 애정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① 성 개념

남편은 노년기 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부인의 경우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아 성에 대한 개념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성에 대한 개념이 긍정적인 경우, 결혼생활에서 성관계는 당연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고, 부정적인 경우 노년기의 성은 부끄럽고 징그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성에 대한 개념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꼭 한방을 사용함)

우리는 적대론 각방을 못 써요. 저 사냥이 그걸 싫어해. 꼭 한방을 사용해요... (사례2, 부인)

얇막 싸워도 각방은 안 써요. 이제껏 딱 방에서 자 본적은 없어요. 우린 그런 일이 없어요. 애들 기를 때도 가운데다 애들을 재우면 아저씨가 싫어해요. 그 정도론... (사례8, 부인)

(부인이 별로 원치 않음)

나는 생각이 없다가도 그냥 남편이 원하면 응하는 편이고, 그렇지요. 좋아서 내가 먼저 하자고는 안 하지요.. (사례12, 부인)

성관계는 안 해요. 전에는 내가 받아 주면 뽕텐데...내가 뭐 하냐고,,, 몇 달 되었을거야. 잘 안 해...예전부터 좋다고 생각은 안 했어, 그냥 먹여주는 것은 좋은데...그게 좋게 생각이 안 들어. 이 나이에... 무슨... (사례4, 부인)

(노년기 성에 대해 좋게 생각함)

나는 노인의 성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체가 허약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집사람 폐경이 일찍 왔어요. 그래도 사이는 좋았어요. 어쩌다 하면 만족도는 많지요... (사례5, 남편)

(노년기 성은 징그러움)

그냥 그런 얘기는 서로 안 해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영화 같은 걸 봐도 왜 그런 징그러운 걸 보냐고 내가 그래요... (사례7, 부인)

(노년기에 부인은 있으나마나 함)

내 욕심만 차리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다못해 첩이라도 등인다거나 어디 가서 즐겨하는 뭐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해를 하니까... 늙으면 자연적으로 흥아비가 되는거여, 속설에도 있잖아, 60세 넘으면 마누라 있으나마나 타고... (사례1, 남편)

② 성 욕구

노년기에도 부부의 성적인 욕구에는 변함이 없다. 부인이 폐경기 이후의 생리적 변화에 대처하여 부부의 의미 있고 즐거운 성생활을 위해 부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인이 폐경 이후 나타난 생리적 변화로 인하여 성관계를 기피하므로 부인을 배려하기 위해 남편이 스스로 성욕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여전한 성욕이 있음에도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욕이 감소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년기 부부의 성생활은 남편의 신체적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성생활은 마음먹기에 달림)

솔직한 얘긴데 아주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은 옛날에 비해 조금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나봐. 내가 옛날처럼 느껴보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좋아지더라고... 저 사람이 그래요, 여자가 돼서 자기만족은 본인이 느껴야지, 무뎌뎌하고 귀찮다고 그러지 말라고... (사례2, 부인)

(남편이 자제를 함)

내가 자제를 하지. 장애는 없는데, 심리적으로 자제를 해요. 집사람도 폐경이 되고 난 후에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짝이 다르니까 아프다고 해서 내가 자제를 해요... (사례4, 남편)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성관계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집사냥 배려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욕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남편) 나는 하기 싫어, 일년에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어... (사례9, 부인)

(싸우다보니 마음이 멀어짐)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퇴직 후에 그것이 깨지더라고요. 관계는 가능한데 마음적으로 좋지 않으니깐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례5, 부인)

(아직도 욕구가 있는 게 이상함)

지금도 가끔 생각이 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못하니까 그냥..여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 그게..나이가 70이 넘어도 그게 지금도 (욕구가) 생기는 게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참아요, 그냥... (사례3, 부인)

(오래 참다보면 생각이 없어짐)

지금도 관계를 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욕심도 기력도 없어졌어요.. 집사냥 당늬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참아요. 그러면 생각이 없어져요... (사례11, 남편)

③ 성 빈도

부부들은 남편이나 부인 모두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노화나 노인성 질환(고혈압, 당뇨, 전립선 비대증 등)을 갖고 있음에도 젊음이 못지않게 활발한 성생활을 즐기고 있는 부부가 있지만, 부부 누구에게도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성관계를 기피하고, 성 욕구를 억제하며 심지어는 부부가 각 방을 쓰기도 하였다. 성생활은 배우자에 대한 심리. 정서적인 감정이 크게 작용하여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 노인의 성관계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폐경 이후에 달라진 신체적 변화를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부부는 성관계가 없어도 오래 살아온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 부부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많이 할수록 좋음)

성은 부부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여, 건강이 허약하면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남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하면 친구들도 놀라요. 나는 예전에 자궁수술도 했어. 그러니까 하는 게 불편하잖아. 그래도 남편이 원하기 때문에 응하는거지... 하고 나면 좋아... (사례8, 부인)

노년기 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족하는 편이야. 그냥 늙어서 그렇지 일주일에 한번은 해요,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이 많다면 뭐... 좋게 생각하는거지요. (사례6, 남편)

(부인이 받아주지 않아 못하게 됨)

안 해요..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늙은이가 삼부인과 가는 것도 창피하고. 나이가 들면 뽀뽀해져서 여자들이 피해 다니는거야. (사례4, 부인)

(횟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즐김)

젊었을 때는 자주 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에 내가 그렇게 성질을 부리니까... 자연적으로 잘 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다 하면 성적 만족도는 많지요. (사례5, 부인)

(성관계 없어도 서로 아끼고 살아감)

안 해요. 그래도 식구가 많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싫어해요. 그러니 항방을 사용하지만 성욕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애.. 성관계 없어도 그냥 서로를 아끼고 살아가는거지... (사례3, 남편)

(성관계 안 한지 오래 됨)

나는 원래 성생활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 싫어, 나 안 해' 그랬지....(부인) 부부는 성관계를 없어도 오래 살아 온 점이 있으니까 정으로 살고 있지... (사례11, 남편)

④ 성적 표현

성적 표현은 부부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정서적인 교류로써, 부부간의 성적 적응이나 만족 또는 성적 갈등을 나타내는 영역으로 성생활 내용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부부는 성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으며 정서적으로 만족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만족이 클수록 그리고 성적 만족이 클수록 성에 대한

열린 대화가 많아진다. 친밀한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난 후 둘만이 있게 되면서 오히려 편안해져 자유롭게 부부만의 시간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부부가 있지만, 부부 둘만이 있더라도 성적인 표현이나 대화는 아예 하지 않거나 부자연스럽고 부끄러워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부도 있다. 주로 남편은 성적인 표현이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부인은 이를 회피하려 하고 어색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남편과 부인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부부간에 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성생활을 촉진시켜주는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 하며 부부간의 친밀감을 향상시켜주는 매개체이기도 하였다.

(부부가 서로 자유롭게 즐김)

예전엔 자식들도 한방에 재우고 하니까, 자식들 눈치 보이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그런 대화를 하는 거지... (부인) 그런 대화가 없으면 낙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자주 합니다... (사례2, 남편)

우리는 애들을 키울 때도 가운데다 애들을 재우면 아저씨가 싫어해요. 그 정도여... (사례8, 부인)

(남편이 표현하면 들어만 줌)

어떤 때는 조심조심 그렇게 살짝하게 하는데, 나는 안 해. 남편이 먼저 꺼내면 들어주는 정도지 먼저 하지는 않아, 여자니까... (사례9, 부인)

보통 때는 안 하고, 관계를 가질 때 자유롭게 하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되면 하긴 해요.. (사례12, 남편)

(금실 좋은 다른 부부가 부러움)

(남편은) 성적 표현을 하는 편인데..내가 잘 받아주질 않나 봐요. 그러다가도 저보다 나이 드신 노인 분들 손잡고 다니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사례10, 부인)

(성적 표현을 할 필요를 못 느낌)

그런 애길 하는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뭣이야, 그 부분은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대화를 안 해요... (사례3, 남편)

(짧어서부터 해본 적 없음)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런 것에 대해 대화를 잘 못해요. 내가 비우가 없으니까..지금까지 남편 앞에서 브래지어 바캬, 팬티 바캬으로 한 번 생활 안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터놓고 이무겁게 대화를 한번도 안 해 봤어요... (사례1, 부인)

4)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 느낌과 태도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부부는 경험과 관심을 서로 나누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 더욱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해가며 부부간의 상호존재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된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은 부부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만,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은 부부 사이를 소원하게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사소통을 통한 자기노출은 한 개인이 상대방에게 자발적이고, 솔직하고, 개방적인 언어적 진술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기노출에는 긍정적인 자기노출과 부정적인 자기노출이 있다. 긍정적인 자기노출이란 개인적인 장점이나 기쁨,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표현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자기노출이란 개인적인 결점이나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격려해 주거나 솔직한 의사소통 행동은 노인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고 서로 간에 믿음을 형성하게 해주어 결혼생활 만족을 높여준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 이어지는 후속의 결과로 나타난 대화의 감소와 단절은 노년기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울한 기분으로 살게 되거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의사소통 행동

부부가 늘 함께 다니는 부부의 경우에는 대화의 소재가 끊이질 않아 서로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그러나 부부가 생활에 꼭 필요한 말만 나누는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일까지 다 쏟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한

쪽에서 말을 걸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한 부부와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서 부부가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늘 대화를 많이 함)

항상 같이 다니니까.. 모임도 같이 다니고..우리는 늘 같이 댕겨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요, 우치처럼 대화 많이 하는 부부는 없었거여. (남편) 대화는 많이 나누죠. 항상 같이 다니
니까.. 시장도 같이 가고, 어디를 가도 같이 다니니까.. (사례2, 부인)

(꼭 필요한 말만 함)

자주 안 해요. 사소한 말은 안 하고 꼭 할 말만 하니까...농담도 안 해요...말이 별로 없어
요. 남편과 말이 별로 없어요... (사례12, 부인)

(감정을 다 펴부어야 속이 시원함)

다 퍼 붓고,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다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에 묵힌 게 없으니까 조금
평안이 타요. 그래서 퇴직 후 한 5-6년이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사례5, 부인)

(한쪽에서 말을 걸어야만 가능함)

내가 말을 걸어야지 먼저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나가서는 전화를 잘해요, 지금 어디
에 있는냐고, 그런 어디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사례7, 부인)

(대화기술이 부족함)

대화는 내가 많이 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툭툭 씌버리더라고.. 난 솔직히 말하면 난 배
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텅 배운 사람이거든. 이상이 안 맞아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남편) 대화를 거부하는 않고 잘 들어. 대화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지.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의 말에 오해를 하기도 하지... (사례11, 부인)

② 의사소통 수준

어디든지 늘 함께 다니는 부부들은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많이 하며 솔직하고 비밀이
없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하여 서로가 원하는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
시켜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대화만 하거나 하루
의 일과를 서로에게 보고하는 식의 대화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하였다. 혹은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과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배우자로 인하여 형식적인 수준으로 머무는가 하면, 남편의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여긴 부인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도 짐작을 하였다. 부부 간에 대화가 안 이루어져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싸움으로 이어질까봐 혼자 속으로만 참고 있거나 삭히는 부부의 경우도 있었다.

(서로 솔직하게 다 얘기함)

밖에서 술을 먹던가 여자랑 놀았어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서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싸움 일이 없는거여. 다 얘기를 하니깐 멀게 되는거지요... (남편) 나는 저 양반 백프르 다 알아요... (사례8, 부인)

남편에 대해 백프르 다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사는거지요.. (부인) 나도 다 알죠...다 좋아요, 성격 좋고 대인관계 좋고... (사례2, 남편)

(형식적인 대화만 나눔)

대화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야기 하는거지 뭐... (부인) 각자 취미활동이 다르니까 집에 가서는 각자 한 활동에 대해 말하고 하지,, 특별히 대화할 것은 없어요... (사례4, 남편)

속엿말을 다는 못하지, 한 50프르 하나..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 신경을 쓰니까 다 말을 못해요.. (부인) 나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편인데 내가 예뻐해서 식구가 얘기를 다 못해요.. (사례12, 남편)

(대화가 안돼서 답답함)

얘기를 다 못 해요. 얘기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기분 나쁜 일이 있나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고집이 옛날식 있잖아요. 억누르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무슨 얘기든 못 하고, 한도 못 내고... (부인) 제가 뭐라고 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거의 백프르 이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불만을 느끼니 당당하네요 .. (사례10, 남편)

(무슨 얘기를 할 것까지 다 알고 있음)

나는 남편을 전적으로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할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나를 몰라요. 내가 남편을 속여먹는 건 일도 아니예요. 속아 넘어가요. 쉬운 일이에요. 그렇치 나를 믿는거예요... (사례7, 부인)

(속엿 말을 해 본적이 없음)

나는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게 많아서 속엿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사례11, 부인)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은 가족적인 얘기 아니면 건강에 대한 얘기, 근래에 친척들 등별적인 얘기, 친구 문병 가는 얘기, 그런 대화 정도지 엄청나게 큰 대화는 못해요. (남편) 나는 나가서 있었던 일 아니면 남한테서 들은 얘기 정도지요.... (사례1, 부인)

5) 성역할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 과정은 부부로 하여금 각각 정해진 남녀의 성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그에 따라 뚜렷이 구분된 성역할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은퇴 등으로 인하여 직업 역할을 경험한 남성은 수동적이고 양육적이 되며, 자녀 양육의 역할에서 벗어난 여성은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적이 되는 등 성역할에서 변화가 일어나 양쪽 모두 성역할에 대한 의식을 재편성하지 않는 한 부부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김애순, 1993). 연구 참여부부들은 대부분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성역할을 담당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성역할을 고집하는 부부도 있어 성역할은 개인의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성역할 태도

성역할의 구분이 없이 부부가 평등하고 남편의 양성적인 성역할 태도를 취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성역할의 태도를 고수하는 남편이 있기도 하였다. 혹은 남편의 의존으로 부부의 성역할이 바뀐 부부의 경우도 있었다.

(성역할 구분이 없음)

남자라고해서 뭇 떠타, 이거 가지고 뭇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고.. 세탁기도 돌려주고, 예전에 세탁기 없을 때는 이 양반이 고무장갑 끼고 빨아주고 그랬어요. 남편이 많이 도와줘요...나는 지금도 세탁기를 잘 못 돌려요. 이 사삼이 세탁기 다 돌리고.. 다 겁쟁해서 옷도 입고... (사례2, 부인)

고추를 욕상에 넣었는데 고추가 바깥에 다 날렸는가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깐 (남편이) 다 챙겨놨더라고... (사례6, 부인)

이번 일요일에도 딸이 직장 다니느라 김치도 못 담아서 내가 해 줬어요. 아저씨랑 같이 했어요.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했지, 혼자서는 못 했을거야... (부인) 마누라 문 생각해서 이제 그깟 때라고 했어요... (사례8, 남편)

(옛날 배운 대로 함)

내가 못 하게 해요. 설거지 같은 거 뭐 하러 남자가 들어가시고 하냐고..내가 없다면 몰라도.. (부인) 옛날에 배운 그대로 하는거여..... (사례9, 남편)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임)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콘트롤을 못 해서 그런 거 같애..... (남편) 몰라요, 남자들은.. 우리 세대가 남자들을 떠받치고 북돋아주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그래요.. 우리 애들은 내가 아버지한테 한 걸 반냈기 때문에 손도 안 댈다. 잘 부러먹으라고 맨날 그래요.. (사례5, 부인)

(성역할이 바뀜)

환경이 사람을 망들드라구요. 처녀 때는 남편의 집에 가서 밥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숙기가 없었는데.. 남편이 약하니까 여자가 약해지고, 강해지고... 남편이 우리 아저씨를 뭐라고 나무라면 내가 나서요... (사례7, 부인)

(성역할 구분이 확실함)

가사일은 여자가 하는거지, 남자가 왜 해?... (남편) 큰아들이 얼마 돌아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가스 불 켜는 것도 알려주고 방해서 장숫는 것도 배우셔야 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가스 불 켜는 것은 배웠어요.. (사례11, 부인)

② 가사노동 분담

가사노동 분담은 부부가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 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부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서로를 잘 이해하는 부부는 가사일 분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남편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힘을 많이 요구하는 집 밖의 일은 물론 가정 내의 청소나 주방일, 빨래까지 도맡아 도와주는 남편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통적인 성역할의 개념을 고수하는 남편의 경우에는 부인이 아파도 가사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주방일은 부인의 일이고 남편은 부인이 바쁠 때 청소 정도를 도와주는 수준이었는데, 은퇴 후에 늘어난 시간적 여유의 영향으로 부인을 거드는 정도의 가사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부부 간의 평소의 애정과 친밀감의 정도를 나타내주기도 하고 성역할에 대한 부부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줌)

평상시에든 젊어서부터 청소는 원래 내 닻당이에요. (남편) 뭐라도 도와줄라고 하고, 집 밖 청소도 물론 다 해줘요.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잘 도와주는데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남편하고 싸운대요. (부인) 남자들이 좀 도와주어야 되는 거 아니요? 옛날부터 연탄불도 갈아주고 그랬어요... (사례8, 남편)

가사일은 통 안했는디 볼 여쭙에 내가 아파서 이것 좀 해줘요, 저것 좀 해줘요, 그러면 해주고.. 인사는 양력뺄술도 갖켜주니께 잘 해요.. (사례6, 부인)

(부인이 요청하면 도와줌)

청소 같은 거, 지금은 남편이 가꾼 도와 줘. 부엌일은 내가 다 하고. (사례4, 부인)

집에 같이 있으니까 특별히 할 거 없으면 잘 도와주는 편이에요, 청소 같은 거. (사례12, 부인)

(남편이 필요 시 마지못해 함)

가사일이나 집안일은 제가 다 해요, 안 도와줘요. 나 없을 때 다 해 놓은 뺄 혼자 차려먹는 정도지... (사례5, 부인)

(도와달라고 해도 하지 않음)

안 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도와달라고 해도 안 해요. 내가 닻득주택이니까 할 일이 많아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 해요. 뺄전이요, 뺄전. 7남매 막내로 커서 지금도 애기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아파도 아무 것도 안 해요. 꼭 차려주어야 할 먹고... 내가 너무 힘드어요...

(사례7, 부인)

(부인이 전적으로 혼자 다 함)

인세라고 가사 일 분담은 없어요. 집사장이 다 해요. 혼자. (사례1, 남편)

우리 애들이 그래요. 뻘요, 아버지, 지금 얼마나 살지요. 얼마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흠에 비 된다고 해요. 집안일은 나 몰라라 예요... (사례11, 부인)

6) 의사결정 방법

의사결정이란 어떤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취해야 할 방향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부부간에 어떤 일이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최종의 의사결정을 알아봄으로써 부부간의 권위와 권력이나 지배, 혹은 힘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있었다. 평등한 부부는 부부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 늘 상의를 해서 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중 권력이 센 한 쪽의 결정에 의해 일이 처리되거나 결정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은퇴 후에 달라진 힘의 구조에 의해 은퇴 전에는 주로 남편이 의사결정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힘의 이동이 부인에게로 향해서 부부가 절충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부인이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부가 늘 상의함)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항상 상의를 하지요, 혼자서 결정을 하지는 않아요... (사례2, 남편)

서로가 의논해서 돈을 쓰고, 가정일 결정도 꼭 상의해서 하죠. 돈도 꼭 상의해서 쓰죠. 비자금도 없어... (사례8, 남편)

(한쪽에서 결정하면 따라감)

집사장이 집안일에 신경 쓰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집사장이 다 알아서 해요... (남편)
나이가 들면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 쪽에서 누가 지고 따라가야 하거든요... (사례9, 부인)

(은퇴 후 주도권이 바뀜)

예전에는 내 결정에 따르게 했지.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갈 때도 내가 팔로우 미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 대화를 해서 집사님 의견에 따르도록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해야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나이를 먹음수록 병도 들고 하니까 어떻게 하던지 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사례5, 남편)

(부인 손에 달림)

가정 일은 내가 다 결정해요. 이 집 어른은 나요, 나. (부인) 그해야 모든 것이 다 좋지. (사례7, 남편)

누가 남편이 돈 관리고 뭐든 결정한다고 하면 웃어. 말하자면 내가 참는거지, 그것이 남편의 취미이고 낙이니까 그것을 빼앗으면 안돼지... (사례3, 부인)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함)

지금 애들 하는 소리가 그해요. 아버지 너무 한다고... 아버지 요즘 같으면 장가 못 가요... 얼마나 살아왔지. 혼자 살아야지 못 한다고... 나는 한평생 내 자존심을 모르고 살아왔어. (부인) 집사님이 화가 나면 오래 가야해. 그랬다가 이 사님이 기분 좋을 때 관철 시키는 거지.. (사례11, 남편)

7) 갈등해결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다. 갈등은 사전적 의미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 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① 갈등해결 태도

화가 났더라도 금방 풀어져 갈등해결이 빠른 부부가 있고, 말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 부부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갈등대처의 방법이 지속되면 부부 서로의 가슴에 앙금이 생겨 마음에 남게 되어 결국은 부부

관계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또한 부부가 갈등상황에서는 싸우더라도 같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며 갈등을 삭히며 억누르는 부정적인 방법도 사용하기도 하였다.

(화냈다가도 금방 풀림)

이 양반이 화가 났을 때는 내가 가랴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질이 나서 어찌고저찌고 하면 또 이 사람이 가랴히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고 뺄죠... 근데 이 사람은 화를 내도 오래 못 가. 3분이 안 가요. 내가 먼저 뺄을 걸어서 그렇게 하다보면 풀어지는거야. (부인) 내가 한번 성질을 부리다가도 한 번 지나면 금방 풀려. 그게 사실이야... (사례2, 남편)

서로 오래가지 않고 바로 푸는 편이야. 내가 성격이 참고 지내야 하는데 못 참는데 어떡해. 내가 푸르르 하면 남편이 참고 기다려줘요.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니까 별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례8, 부인)

(화 푸는 시간이 짧아짐)

이 양반이 화가 나면 뺄을 안 해요.. 옛날에 어른들 계실 때 뺄 자주 하면 더 싸우게 되니까 한 보습씩 뺄을 안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오래는 안가도.. 갈등이래야 순간적인 갈등이지. 순간적으로 의견이 안 맞았을 뿐이지. 그러면 남편이 대담을 잘 안 해요. 그래도 조금 있으면 풀리고... (사례9, 부인)

(서로 대응해서 풀어야 함)

남편이 잘 받아줘서가 아니구요, 서로 대응을 해도 같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은 속이 시원하죠.. (부인) 받아주기도 하고, 나도 되받기도 하지요... (사례5, 남편)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거의 백 퍼센트 이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거든요.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제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을 느끼고... (남편)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깐 싸워요, 나는 할 말이 있어 하는데 대화하다가 항상 싸워요. 나는 서운한 것만 자주 얘기하고, 저 쪽은 내 마음은 안 그렇다고 그러고... (사례10, 부인)

(소리를 질러서 풀게 됨)

내가 한가 나면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면 남편은 말을 안 해. 내가 옛날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잘못 했냐고, 이제 용서 좀 해주면 안티냐고 그래요... (사례3, 부인)

(화가 나도 속으로 삭힘)

삭히죠.. 시간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 아니래도 서로 그런 일 없이 서로 다투는 일 없이 편안하게 살자 그런 생각을 해요... (부인) 저 사람이 삭히며 사는 거 알면서도 난 남편한테 아양을 떨거나 변덕스러운 얘기를 못 해요. 아양 떨게 가서 뭐 이렇게 그런 말 저는 안하고 살아요. 비우 뺏추는 거 못해요... (사례1, 남편)

② 갈등해결 방법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은 부부가 갈등상황에 놓이면 주로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데 해결이 될 때까지 부부가 함께 노력하는 부부가 있었지만, 대화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음에도 한쪽에서 참거나 이해하려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혹은 갈등상황을 회피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고, 부인 한쪽에서 종교의 힘에 의지하며 갈등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대화를 해서 풀게 됨)

이제는 부부갈등이 생길 일도 없고.. 만약 생긴다면 서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지. 이제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사례6, 남편)

여간해서 안 싸워.. 아주 안 싸운다고는 할 수 없고.. 크게 싸우던 안 해봤어.. 자기가 참고 난 급방 폭어지고... 언제 싸웠냐 할 정도로... 마음속에 맺힌 게 없어요, 그때그때 해결해야지.. 서로 오래 가지 않고 푸는 편이야. 대화를 풀어야지.. (부인) 같이 하면 싸우니까 나는 참고만 있어요.. 그러면 급방 미안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돼요.. (사례8, 남편)

(참고 이해하며 풀게 됨)

젊었을 때부터 싸움을 못했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서.. 그래서 지금도 싸움이 안돼요.. 골나도 싸움까지 갈 것도 없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다 말고... 대통령 부인도 속 썩고 사는 거 봐. 남편한테 큰 욕심 안 부리면 한낱 일이 없어요. (부인)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오십년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해하고 참고 살아야지... (사례4, 남편)

편)

(싸움을 걸어서라도 풀어야 함)

직장 있을 때는 서훈 떨어져 있으니까 아침 일 있는데 여자들은 안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 구...(남편)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냥 풀어지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그랬죠.. 내가 싸움을 안 걸면 싸움이 안돼요. 시퍼렇게 싸움을 걸지요. 원인이 생겼을 때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넘어갔다가 그걸 터트려야 하는데...터트리는 방법이 서투려서 그런가 어쨌든 속을 핵 뒤집어 놔야지...(사례5, 부인)

(갈등상황을 회피함)

우리 아저씨는 한가 나면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공하고 있다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피해 버려요. 동네 포장마차에 가서 얘기 하고 놀다가 잘 때 쭈 되면 자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요. 내가 온갖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해요.... (사례7, 부인)

애들 생각하면서 풀었어요. 그리고 얼마 자리가 크잖아.. 애들 때문에 살았지... (사례3, 부인)

(부인이 종교에 의지함)

나는 어려서부터 저 지으면 안된다, 거짓말하면 안된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50년을 살아오니까 뭐.. 그렇게 싸움 일도 없고.. 하느님을 믿었으니까 살았지, 하느님을 안 믿었으면 난 당신하고 낱낱태서 못 살았을거라고 그렇게 말 했어요. 내가 하느님을 알았으니까 살았지... (사례11, 부인)

8) 사회활동과 공유여가

자녀 독립과 직장에서의 은퇴는 노인부부에게 많은 여가 시간을 가져다주었다. 노년기 부부에게 사회활동은 건강의 증진과 자신의 존재감과 유용감을 확인시켜 주어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증가된 여가시간을 함께 공유하거나 즐기며 사회생활을 하므로 늘 함께 다닌다. 그러나 평소의 부부관계에서 부부 서로 대화가 없거나 친밀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에는 취미생활이나 모임 등에도 부부가 각자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① 취미활동

하루의 일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 다니는 부부들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활동에서부터 취미생활까지 활발한 사회적 참여를 하였다. 부부가 이사를 온지 얼마 안 되어 서로에게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부부가 친구의 역할까지 대신 해주며 늘 함께 다녔다. 혹은 남편의 은퇴 후에 부인은 사회활동을 원하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남편과 함께 있으면 답답해서 부인이 밖으로 나가는 일을 선호하였다. 또는 부인이 남편의 사회활동까지 책임져 주는 부부의 경우와 남편 혼자서만 사회활동을 즐기는 경우도 있었다.

(늘 같이 하니 행복함)

복지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지요, 둘이 같이 매일... (남편) 취미활동은 늘 같이 해요.. 행복하죠.... (사례8, 부인)

대전으로 이사 온지 3,4년 됐거든요. 대전으로 이사 오니까 이 사람도 친구가 없고 나도 친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상 같이 행동을 하는거.. 어디를 가든지 그집자같이 다녀요... (사례2, 남편)

(취미활동을 꾸준히 해 음)

집에 우울하니 앉았으면 병 날 것 같고.. 산에 가고 싶는데 갔다 오면 며칠씩 병이 나서 온 젊은 딸이 안가.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줘... (사례9, 부인)

자원봉사는 한 20년 정도 했어요. 매주 한번씩 해요. 봉사를 하면 내가 얻어지는 게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봉사를 한다는 게 좋아요. 즐겁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그러니 집에서 있을 때도 외로움 새가 없어요.. (사례12, 부인)

(갈등의 돌파구로 취미활동을 함)

집에서 딱 마주치면 싸우지, 밖에 나가면 마음이 아주 깨끗하잖아요. 집에서 냄새 싸워놓고도 밖에 나가서는 웃어야 하잖아요. 그게(취미 활동)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가 있다

고 생각해요. 그게 없었다면 이혼도 했을테지, 아님 집을 뛰쳐 나갔을거예요. 다음 날 스케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례5, 부인)

(남편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함)

취미생활? 우리 할아버지는 혼자 못 가. 아무데도 못가, 내가 없으면 안 가.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없으면 (복지관에) 못가. 내가 없으면 안가. 어색하셔서. 싫은 것보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전에는 어디 가서 노래도 잘 부르고 잘했어. 그런데 지금은 못하더나구요. (부인) 그렇지, (부인이) 모든 걸 다 하니까... (사례3, 남편)

(남편 혼자서만 즐김)

이 양반은 성지순례도 가고, 신협 일도 돕고, 자기대로 사는 거예요. 성당과 관련된 일도 있고 엄청히 많잖아요. 이 양반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바깥일에 발 벗고 나서니까 난 그게 싫은거예요. 나는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눈앞 뜨면 일하고 그랬는데... (사례11, 부인)

② 공유여가

부부가 여가를 함께 즐기기 위하여 복지관에서 같은 취미반으로 부부가 함께 옮긴 경우가 있었고, 건강관리는 같이 하지만 그 밖의 취미생활은 각자 하기도 하였다. 혹은 남편과 부인이 같이 하는 취미활동이 없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며 부인이 없으면 남편은 복지관에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부부가 여가를 함께 할 수 있음에도 부인과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자 여가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부부가 매일 같이 즐김)

여기(복지관)에 오자마자 댄스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다른 남자들이 손 볼장는 거 보고 같이 그깃 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탁구반으로 옮겼지요.... (사례2, 부인)

(여건에 따라 달라짐)

아침에 같이 등산하러 가거나 생활체조 하러 가요. 건강관리 하러요. 그런데 오후에는 이

양반이 주말농장에 가기 때문에 같이 뭐 하는 건 따로 없어요... (사례9, 부인)

취미가 다르니까요... 배드민턴도 할 때는 같이 쳤는데 내가 공을 잘 못 쳐서...(이젠 같이 안 해요)... (사례4, 부인)

(같이 하는 활동이 없어 안타까움)

지금 맞추려니 힘들어요. 집사냥이 서예, 서화 했을 적에 나도 같이 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텐데.. 지금은 몰라요. 변명인지 모르겠는데 습지가 없더라고요... 부인하고도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니 아직 못 하고 있고...(사례5, 남편)

(부인을 따라다님)

같이 하는 여가생활은 복지관에 가는 거.. 레크레이션반을 같이 하는데 우리 남편은 쑥스러워서 여자들 많은 데를 못 가고 뒤에만 있다가 짜요. 나는 저 앞에 가서 노래도 하고 떠들어야 되는데.. 첩엔 나만 가고 복지관에도 안 갈라고 해서 내가 컴퓨터 배우자고 데리고 갔어요... 그 때 배운 컴퓨터를 지금 인터넷 바둑을 하는거예요... (사례7, 부인)

그전에는 남편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안 해요. 항상 주무시니까 내가 꼭 끌고 다니는거지.. (사례3, 부인)

(각자 따로 여가를 즐김)

나는 독서하는 것을 좋아해서 책보고, 집사냥은 가사일을 하니께... 집사냥이랑은 수준이 달라서... (사례11, 남편)

여가 시간은 집에서 주로 보내지만 집사냥은 텃밭에서 일하고, 나는 신문투고나 일기, 공부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사례1, 남편)

3. 부부관계 유형화

1) 친밀형 (사례 2, 6, 8)

이 유형의 부부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높고, 젊어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 까지 변

함없는 애정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복지관에서 이성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끼는가 하면(사례 6), 70이 넘는 부인의 외모를 남편은 지금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 복지관에서 남성 노인들의 접근에서 부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댄스반을 그만두고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탁구반으로 옮겼고 (사례 2),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자 남편은 헌신적인 간병을 함으로써 부부 간의 돈독한 정을 보이고 있었다(사례 8).

이 부부들은 자녀들을 모두 출가 시키고 둘 만이 남아 산 기간이 13~20년으로 비교적 긴 빈 둥우리기를 보내는 동안 서로에게 적응을 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우위를 차지하는 성생활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부부는 노년기 성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성은 부부간에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로 여기고 있다. 부부가 70대 임에도 여전히 주 1회의 성관계를 만족스럽게 즐기고 있으며(사례 6, 8), 부인이 30대에 자궁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원하므로 당연히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사례 8). 또한 부인은 폐경기 이후 성적 욕구가 많이 사라지고 느낌도 달라졌으나 남편의 지지와 격려에 따라 성생활의 즐거움을 찾고 의미 있는 부부관계를 위해 젊었을 때와 같이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니 예전처럼 좋아졌다며 부부관계는 여자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한다(사례 2).

젊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 남편이 싫어해서 부부 사이에 아이를 두고 자본 적이 없으며(사례 8), 아무리 부부가 싸워도 부부는 각 방을 써 본적이 없다(사례 2, 6, 8). 부부들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익숙하여 성적인 대화는 결혼생활의 활력소라고 생각하고 있다(사례 2). 부부가 젊어서 자녀양육을 할 때는 아이들 눈치가 보여 성적인 대화나 표현을 마음 놓고 못했는데 지금은 눈치 볼 사람이 없어 오히려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부부간의 애정표현에서도 적극적인데 특히 남편이 부인에게 말로 하는 애정표현과 함께 빈번한 스킨십을 통하여 부부간의 애정을 나누고 확인한다.

부부는 서로를 가장 오래 된 좋은 친구 혹은 무조건적인 내편 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할 만큼 평생을 함께 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세 부부 모두 부부간에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인은 자신의 남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나 단점을 수용하고 잘 맞추어주고 있다. 남편의

괴팍한 성격으로 남들이 저런 남자와 어떻게 사느냐고 하지만 부인은 개의치 않으며(사례 2), 남편의 까다로운 식성을 맞춰주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있으며(사례 8), 남편이 대학교육까지 받았는데 농사일을 하는 게 안쓰럽고 딱해 보여 부인이 이를 이해하고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늘 든다는 것이다(사례 6).

이 부부들의 특징은 부부갈등이 적고 갈등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익숙하였다. 남편은 화가 나면 급한 성격 때문에 할 말을 다 해 놓고도 3분 안에 풀어져 갈등상황이 빨리 종결되며(사례 2), 부인의 욱 하는 성질 때문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마다 남편은 기다리고 참아주면 부인이 금방 사과하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이다(사례 8). 그리고 부부가 서로 어떤 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더라도 대화로 풀며 이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낼 일이 없다는 것이다(사례 6). 이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애정관계 안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유형이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자녀들 교육비 충당이 어려웠을 때 부인은 헌신적으로 가정일과 자녀들을 돌보며 동네 공장에서 일을 했고(사례 2), 집에서 아이들 양육을 책임지며 봉제 일을 했으며(사례 8), 남편이 하는 농사일을 적극적으로 거들며 수입을 거두어들이는데 한몫을 하였다(사례 6). 그로 인해 남편은 지금도 부인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으며 부부는 자녀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남편하고는 가사분담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가사일은 부부공동의 책임으로 나누어 하고 있다. 이 유형의 남편들은 젊어서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인을 시키지 않고 스스로 하며 살았다. 청소는 물론 연탄불 가는 일이나 빨래와 주방 일까지 자신이 부인을 도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돕고자 하였으며, 부인 역시 이러한 남편의 협조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또한, 이 유형에서는 노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보이며 부부 간에 사회 활동과 취미활동 함께 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노년기 부부 적응 유형이다. 부부는 어디를 가더라도 늘 동행 하는데 외부의 정기적인 모임이나 산책, 취미활동, 심지어는 장을 보기 위해서도 부부가 같이 가는데 무거운 물건을 남편이 들어다 주기 위해서이다. 부부는 언제나 함께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밤에 잠을 잘 때에 부인이 드라마를 보느라 늦게 자므로 부부가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지 못 하는 게 남편의 불만이였다.

친밀형의 두드러진 특징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활발히 한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질적 연구를 행한 이전의 연구들(문혜숙, 1993; 윤양현, 1987)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부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감정적인 자기노출 수준도 높다. 남편은 모든 진실한 감정을 부인에게 솔직하고 쉽게 표현하며, 남편이 어떤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 부인은 남편의 말을 모두 신뢰하는 특징이 있다. 남자들만이 즐기는 문화, 예를 들어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여자들을 불러서 같이 즐기고 온 얘기나 이성으로부터 유혹을 받은 일 등에 대해서도 남편은 부인에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며, 부인은 그러한 남성들만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준다. 그러므로 부부사이에는 숨겨야 할 만한 비밀이 없다. 남편 역시 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잘 경청하므로 부부가 어떠한 문제를 의논할 때나 돈 쓰는 일에 있어서도 서로 상의해서 해결하므로 싸운 적이 거의 없다.

친밀형 부부의 공통점은 부부가 서로 애정이 돈독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며, 친밀감이 높아 서로가 잘 챙겨주는 배려가 습관으로 배어 있고, 성생활과 애정표현, 의사소통에 적극적이며, 가사일과 의사결정을 늘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이해하며 수용하면서 함께 노력하며 살고 있다. 부부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학력은 높지 않지만 노년기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여건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오래 살 수 있는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박원희(2006)의 연구에서 나는 부부의 유형 중 안정애착형은 친밀감점수와 의사소통의 점수가 타 유형들에 비해 매우 높고 갈등점수는 매우 낮은 유형으로 본 연구의 친밀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공통된 점이다. 안정애착형 부부관계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높고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갈등이 적은 매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유형으로 부부간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데 익숙하며 서로를 가장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어 있다.

친밀형의 부부는 Medly(1976)의 연구에서 부부중심형에 속하며 이 유형은 친밀감을 강조하고 관계의 특성을 공유하며 다른 역할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부부의 역할에 결혼의 초점을 두는 유형이다. 또한 Sweeney(1982)의 연구에서는 매우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는 부부의 유형에 속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부부를 박원희 연구의 안정애착형,

Medly 연구의 부부중심형, Sweeney 연구의 매우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는 부부의 유형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친밀형으로 유형화 시키고자 한다. 다음 <표 5>는 친밀형 부부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표 5> 친밀형 부부의 특성

범 주	특 성
부부친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사이의 친밀감이 높음 · 젊어서부터 노년기까지 변함없는 애정관계를 지속함 · 긴 빈둥우리 기간으로 부부적응이 좋고 결혼생활이 안정되어 있음 · 배우자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하며 다른 이성을 질투함 · 배우자의 단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서로 도와줌 · 부부 둘만의 시간을 선호하며 즐김 · 애정과 감정표현이 적극적이고 활발함
부부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는 동고동락한 영원한 친구라고 생각함 · 부부가 서로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잘 챙겨줌 ·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살고 싶음
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싸워도 각방을 쓰지 않음 · 의미 있는 성생활을 위해 부인이 특히 노력함 · 건강이 허락하는 한 성관계를 많이 하고 싶음 · 성적인 표현을 부부 서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즐거움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늘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간에 비밀이 없음 · 감정표현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함 · 부부간의 신뢰가 높고 부부가 서로 백프로 알고 있음
성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간의 성역할 구분이 없어 늘 돕고 살아움 · 남편이 젊어서부터 적극적으로 가사일에 동참함

의사결정	· 부부가 어떤 일이든지 민주적으로 상의해서 결정함
갈등해결방법	· 화냈다가도 금방 풀림 ·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부부가 서로 노력함 ·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므로 이해 못할 일이 없음
사회활동과 공유여가	· 취미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함께 다니며 공유하고 즐김

2) 공식형 (사례 4, 9, 12)

공식형 부부의 특징은 부부관계에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고수하는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자식이나 체면 등의 이유로 결혼을 지속시키고 있는 부부관계이다.

외부에서 보면 부부간에 문제가 없고 사이가 좋아 보이는 부부이긴 하지만 부부 사이의 내적인 친밀감은 떨어지는 부부이다. 남편과 부인은 부부관계나 결혼생활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는 충실하지만 정서적인 감정의 교류나 애정 등 부부만족에 영향을 주는 노력은 부족한 특징을 갖고 있다.

남편이 장남(사례 9)이거나 외아들(사례4)이어서 신혼 때부터 부모님을 봉양하며 살아오다가 두 분이 사망하고 부부만이 살게 되었으나, 어른들과 함께 살았을 때부터 부인은 시부모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혹은 의견 등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 온 것이 습관이 되었다. 부인은 화를 마음 놓고 내 본 적이 없고 갈등이 생겨도 감정을 억누르며 남편과 싸워 본 적이 없이 살았다. 남편 역시 부모님들에게 맞추어 살며 어른들 위주로 지내왔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부인에게 애정표현을 해 본 적이 없이 지내왔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친밀감은 형성되지 못하였다. 부부가 둘이만 있어도 평소부터 좋은 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둘만이 남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무덤덤하게 느껴진다.

젊었을 때부터 부인은 성생활을 별로 즐기지 못하며 살았다. 부부가 한 방을 사용하지만 부인이 성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상의 이유로(사례4, 9) 부부관계를 멀리하게 되자 남편은 성기능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의 횟수가 줄더니 지금은 아예 성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 남편은 아직도 가끔 성생활에 대한 욕구와 생각이 있지만 부인이 싫어하므로 일부러 외부활동이나 운동을 하여 육체를 피곤하게 하면서 그러한 욕구를 자제하고 있다. 사례12의 부부만이 현재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아직 젊고 건강하여 신혼 때부터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해오던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부인에게 특별한 질병이 없고, 성적인 즐거움은 별로 없지만 남편이 원하므로 응해주는 정도이다.

집에 들어와서는 부부가 각자 외부에서 활동했던 일들이나 하루의 일과를 보고식으로 대화하고,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애정표현이나 감정은 드러내놓고 대화를 해 본적이 없다. 남편의 성격이 젊어서부터 말이 없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부부만 있어도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성적인 대화나 애정을 확인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과 부인은 서로 필요한 말만 하게 되고 터놓고 서로의 감정을 노출하는 일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남편은 부인이 긴 세월 동안 고생을 하면서 함께 살아준 것이 고맙게 여겨지지만 그러한 감정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으며 부인이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인은 말로 표현해 주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정이 없어 보여 아쉽지만 그러한 감정이나 욕구 역시도 속으로만 느끼고 있을 뿐 말로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영향으로 부부는 서로가 50%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부는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가정의 대소사나 집안일에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일이 발생하면 남편의 은퇴 전에는 주로 남편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남편의 은퇴 이후에는 부부가 의견을 절충해서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부인의 결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가사 일은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고, 남편은 부인이 없을 때 스스로 식사를 챙기는 정도이며 남편이 은퇴 후 늘어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집안 청소를 거들어 주고 있는 정도이다.

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남편은 화를 내거나 말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남편이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길었으나 둘이 살게 된 지금에는 남편 스스로 화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 부인은 남편이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지 않고 참고 기다리지만, 남편이 화를 푸는데 적극

적으로 돕거나 말을 먼저 걸어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이 유형의 부부는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산을 하거나 복지관의 헬스클럽에 같이 다닌다(사례4, 9). 그밖에 부부가 공유하는 취미활동은 없고 부부 각자가 따로 활동하는 일이 더 많다. 남편은 은퇴 이전의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거나, 은퇴 이전부터 해 오던 취미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부인 역시 젊어서부터 있어 왔던 부인들만의 모임에 나가거나 취미생활 혹은 자원봉사활동(사례4, 12)을 하기 위해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낸다. 집에서 부부가 함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누구라도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남편이 은퇴 이전부터 자가운전(사례9, 12)을 하고 있어서 부부가 집밖으로 멀리 나가는 데에는 용이한데 주로 이동용이나 모임에서 단체로 놀러 갈 때 주로 쓰일 뿐 부부만의 여유를 갖거나 정서적인 시간(드라이브나 외식 등)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일이 드물다.

이 유형의 특징은 부부간의 친밀도는 낮으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성생활이나 애정표현, 의사소통에서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다. 부부가 함께 즐기는 여가나 취미활동은 없으며, 부부가 따로 각자의 일에 분주히 활동하며 살고 있다.

이 유형은 Sweeney(1982) 연구의 서로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여 결혼생활을 유지시키는 부부의 유형과 일치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식형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표 6> 공식형 부부의 특성

범 주	특 성
부부친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친밀감은 높지 않으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함 · 부부 둘만이 함께 있어도 감정이 없고 무덤덤함 · 애정표현은 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으로 알고 있음
부부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는 어려움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의식이 강함 · 서로 위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알아야 하는 존재임
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의 의무감으로 한방을 사용함 · 부인이 성생활을 즐기지 않아 횡수가 줄거나 성관계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 않음 · 성적인 표현은 남편만 가끔 하며 부인은 들어주기만 함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말을 위주로 하고 대화를 즐기지 않음 · 부부 각자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는 형식적인 대화를 함 · 둘만이 있어도 할 얘기가 없음 · 서로에게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으므로 서로 많이 모름
성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성역할을 유지하지만 남편이 융통성을 보임 · 남편이 주방에서 힘쓰는 일과 청소 정도를 도와줌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상의를 하지만 최종 결정은 주로 부인이 함
갈등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표현함 · 갈등이 해결되는 시간이 짧아서보다는 짧아짐 · 참고 이해하며 갈등을 해결하려고 각자 노력함
사회활동과 공유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건강관리는 같이 하나 취미생활은 따로 함 · 부인의 활동이 꾸준하고 지속적임

3) 갈등형 (사례 5, 10)

노년기의 연장된 결혼생활은 노부부 간에 갈등과 긴장이 잠재할 가능성이 더 큼을 예상하고 있다. 노년기는 이전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과 역기능이 그대로 넘겨진 시기이기도 하므로(Atchley, 1994) 부부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들이 집을 떠남에 따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새로운 친밀성을 요구하므로 부부가 그 생활에 재적응하는 시도에서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두 부부 모두 빈 등우리 기간이 짧은데, 사례 5 부부의 경우는 5년이었고 사례 10 부부의 경우는 3년이었다. 남편의 은퇴 후 부부는 갈등이 깊어져 계속 싸우며 지낸다. 남편의 은퇴 이전에는 화가 나는 일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남편

은 밖에서 풀고 부인은 일하러 나가는 남편에게 풀지 못해 갈등이 표면화되지 못하였다(사례5). 부인은 자녀양육으로 바쁘게 살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남편의 생각과 행동들이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함께 외출을 할 때나 대화를 할 때 발견되어 실망스럽다(사례10). 이처럼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가 남편이 은퇴 하고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쌓여 있던 갈등이 표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싸움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부인은 가슴 속에 남아 있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누적된 답답한 심정을 풀거나 하소연을 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더욱 더 힘들고 우울해진다.

부부는 다른 부부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면 은퇴 후에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한다고 하여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사례5), 부인은 남편의 퇴직 후 상상하고 꿈꾸어 왔던 남편 퇴직 후의 생활이 영 만 판의 일들로 벌어져 당황스럽다(사례10).

부인이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남편의 태도가 서운하여 부인은 남편이 밋다. 그러다가도 나이 든 노인 부부가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 부럽게 느껴지고, 남편의 정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를 챙겨주지 않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섭섭함으로 가슴 속에 쌓인다(사례10, 부인). 그러나 남편은 퇴직 후에 부인과 함께 놀러 다니거나 둘만의 외식을 원하는데 부인은 그런 것보다는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챙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 남편의 제의를 거절하는데 남편은 부인의 이러한 태도와 서운하다고만 하는 비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사례10, 남편). 이렇듯이 부부는 서로 원하는 바를 대화를 통해 표현하고 충족시키는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늘 싸우며 살고 있다.

부부는 절대로 합쳐 질 수 없는 기차길과 같은 관계이며 만약에 평행으로 가지 않고 만나게 되면 부딪쳐서 어느 한쪽이 깨지게 된다고 생각한다(사례5).

남편은 부부의 친밀감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부인은 인정하지 않으며, 부부 모두 갈등이 팽배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부부의 전반적인 생활은 긴장되어 있으나 둘 사이가 호전되면 성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은퇴 전에는 부부의 성생활이 아주 활발했으나 은퇴 후 부부의 싸움이 늘어나게 되자 부부가 감정이 상하게 되면서 부부관계의 횡수가 줄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부인의 마음이 남편에게서 소원해져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자녀들이 방문하거나 부부 사이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면 부부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한방에서 자고 성관계도 하

는데 성생활의 횟수는 은퇴 전만 못 하지만 성적 만족감은 여전히 높다(사례5). 잦은 부부의 싸움으로 부인의 마음이 떨어져 부부사이의 애정이나 친밀감에도 영향을 미쳐 남편이 하는 애정표현을 부인이 받아주질 않는다(사례5, 10).

은퇴 후의 적응기간 동안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의사소통에도 역기능적이 측면이 있는 유형이다.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인데 남편이 컨트롤을 못해서 부인이 지금 싸우는 것이며 평소에 부부가 대화를 해서 풀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지금의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사례5). 또한 남편은 자신의 생각이 거의 백프로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데 자꾸 부인이 비난하니깐 남편의 입장에서는 반론을 펴게 되어 싸움으로 간다는 것이다(사례10). 남편은 자신이 무엇을 잘 못 했는지, 부인은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지, 다른 집 남편들은 부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해 또한 되질 않는다.

이처럼 남편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는 은퇴 이전의 부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나 늘어난 공동의 시간 앞에서 큰 차이를 보여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진 결과로 사료된다.

남편의 은퇴 전에는 가정의 대소사나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주로 남편이 주도하고 (부인이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의 의견을 따랐으나 지금은 부인의 뜻에 따라 하고 남편이 양보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집안이 조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사례5, 10).

특히 갈등해결 방식에서 회피와 언어적 공격과 같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의 사용이 매우 높아 부부친밀감을 저해하면서 동시에 부부갈등을 증가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갈등의 증가는 여러 가지 가족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가사 일은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남편은 가사 일을 돕지 않고 남편은 부인이 외출해서 나가면 부인이 미리 준비해 둔 식사를 스스로 챙겨 먹는 수준이다. 부인은 남편과 싸움을 자주하여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식사를 꼭 챙겨주고 가사 일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부부가 외부 모임에는 항상 같이 다니며 집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싸우기 시작한다. 부부가 함께 하는 취미생활은 없는데 은퇴 후 지금 생각하니 부부가 함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공동의 취미를 만들어 놓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사례5, 남편). 부인은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의 구실로 외부활동을 많이 한다. 서예나 그림

그리기, 혹은 동화구연으로 매일 밖으로 나간다(사례5). 남편은 인터넷 바둑을 하느라 밤을 새기도 하고 식사를 거르기도 하여 부인은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결국 싸움으로 번진다(사례10). 또한 남편이 운전을 하고 부부는 가끔 외식이나 둘 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외출을 하기도 하는데 같이 나갔다가 들어 오면 꼭 싸우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놀러 나가거나 시간을 보내며 외식을 하는 것도 싫어졌다(사례5, 10).

이처럼 갈등형 부부들의 특징은 긍정적 상호작용은 매우 낮으면서 부정적 상호작용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없으나 부인의 자존심 손상과 남편의 대처행동 미숙으로 사소한 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 유형의 부부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문제는 없으므로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받거나 은퇴 전 서운한 감정을 다 풀어내고 나면 부부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부 적응 유형이다.

갈등형의 부부는 안정된 부부관계의 한 형태를 보임으로써 부부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나름대로의 기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양현(1987)의 연구에서는 갈등이 노골화 된 '상호갈등형'의 부부들에게서도 결혼안정성은 높아 부부관계의 지속은 당연시되었다. 또한 갈등형 부부의 특징과 유사한 박원희(2006)의 연구에서 갈등형 부부관계는 친밀감이 매우 낮고 의사소통이 매우 비효율적이며 갈등은 매우 많은 불안정하고 파괴적 상호작용을 하는 유형으로 부부사이에 신뢰와 지지부재, 대화의 단절, 비난, 무시, 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부부의 유형이다.

Cuber & Harroff(1986)의 연구에서 갈등이 습관화된 부부관계의 유형으로 이 유형의 부부는 심한 긴장과 피할 수 없는 갈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사소한 일상생활의 견해 차이부터 다양하며 단지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싸움이 일어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싸움이 결혼을 해체시킬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불안정한 결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들은 싸우면서 살아가는 관계이다.

갈등형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적 갈등 해결방식의 사용 정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유형의 부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부부가 건설적으로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갈등이 만성화 된 유형의 부부들이 상담 현장에서 보여 주는 특징은 오랫동안 갈등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배우자에 대한 분노, 무시당함, 배

반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높게 나타난다(유은희, 1994).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유사한 점이 많은 점들을 들어 갈등형으로 유형화 하고자 한다. 따라서 갈등형의 부부들에게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적 갈등해결 방식이 감소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갈등형 부부의 특성

범 주	특 성
부부친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후 부부의 갈등이 깊어져 친밀감이 낮아짐 · 부부가 서로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길 바라며 싸움 · 갈등으로 마음이 멀어지고 사랑이 예전만 못한 게 억울함 · 금실 좋은 다른 부부를 보면 부러움 · 사소한 일로도 의견이 달라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 싸움 · 남편이 애정표현을 하지만 부인이 받아주지 않음
부부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는 부딪히면 깨지는 철길 같은 관계임 · 한쪽에서만 배려하고, 배려받기만을 원함 · 다시 태어나면 사죄하고 다시 사이좋게 살고 싶음
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기 성에 대해 좋게 생각하여 많이 하고 싶음 · 갈등으로 각방을 써서 부부관계의 횡수가 전보다 줄었음 · 성적 만족은 여전히 높음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출이 자유로워 대화를 많이 하지만 싸우게 됨 ·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화에 어려움을 느낌
성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역할을 고수하고 있음 · 가사일은 부인이 전적으로 하며 남편은 필요할 때만 함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전에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나 은퇴 후에는 부인의 의견을 따르게 됨
갈등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서로 대응해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까지 끌어내야 함 ·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미활동을 함
<p>사회활동과 공유여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과 여가를 부부가 함께 즐기나 집에 오면 또 싸움 · 부부가 공유하는 취미생활이 없어 안타까움 · 한쪽에서만 취미생활에 몰두함

4) 배우자 의존형 (사례 3, 7)

인간의 성격은 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대, 습관, 주위환경에 대한 사회적 반응, 경험, 기분 등 모든 것의 총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나 형제 또는 친구 등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은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부부간의 성격차이는 부부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부부간에 한 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보다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지배적, 또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특성을 보이거나 혹은 양 쪽 배우자 모두 서로가 의존적이거나 지배적인 경향이 있어서 성격상의 조화가 깨어진다면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뒤바뀐 성역할 태도와 노년기에 증가한 의존성까지 추가해서 한 쪽이 일방을 보호하고, 보호받는 입장으로 기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남편은 7남매 중 막내로 성장하여 어려서부터 부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의존적인 사람이었으므로 결혼 한 이후에도 부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며 살아왔고(사례7), 건강하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 생활의 모든 것을 부인에게 의존하게 되었다(사례3).

남편은 부인이 없으면 의식주는 물론 외부의 일도 아무 것도 못 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고 남편 혼자서는 업무를 낼 수 있는 일이 없다.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 하러 나가는 것조차도 부인이 남편을 끌고 가다시피 해야 이루어지며 남편이 집에 혼자 있으면 잠만 자므로 부인이 한 시도 남편 곁을 떠나 있을 수가 없다. 남편의 신체적 상태가 염려되는 부인은 늘 남편을 따라다녀 주어야 하기도 하고(사례3), 남편이 세탁소에 새로 들여온 기계를 조립을 못해 사용하지 못 하므로 부인이 이를 도와주고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사례7). 또한 부부가 40년을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남편은 통장 일을 보면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편은 직함뿐이고 부인이 통장 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세탁소 운영까지 책임져 주어야 한다(사례7). 그러므로 부인에게 남편은 보살피 주고 챙겨주어야 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남편을 바라보는 부인은 남편이 자신보다 먼저 죽어야지, 부인이 먼저 죽고 나면 남편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것이 걱정이 되어 부부가 동시에 죽거나 남편이 먼저 죽어야 자식을 포함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부인의 부재는 남편에게 고통스럽고 외로움을 가중 시킨다. 부인이 몸이 아파 치료받기 위해 집을 비우자 집에 혼자 남겨진 남편은 술로 지새웠고(사례3), 부인이 딸 네 집에 가 있는 한 달 동안 남편은 매일 울면서 지내 동네에 소문이 났다(사례7).

부부의 성생활은 남편의 당뇨와 뇌졸중으로 성기능이 약해져 성생활을 못하게 되었고(사례3, 7), 부인은 지금도 가끔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만 참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사례3). 그래도 부부는 각 방을 쓰지는 않는다. 밤에 잠을 잘 때도 부인의 마음이 안 놓이기 때문이다. 부부사이에 성적인 대화는 해 본 적이 없고 부인은 남편에게 애정을 느껴 본 적이 없이 살아왔다. 남편 역시 평소에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 탓으로 감정 표현을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부인에게 애정표현을 하지 않고 살아 왔다(사례3, 7).

부부간에 대화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고 지낸다. 부인은 남편에게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해 본적이 한번도 없으며 남편은 말이 없고 내성적이라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살지만 다른 일을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사례3남편은 술, 사례7 남편은 인터넷 바둑). 부인의 성격은 외향적이고 활달하여 감정표현을 잘 하고 사회적 관계도 원만하여 친구가 많은데 자신과 정반대인 남편의 성격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부부의 친구관계도 부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편과 대화는 별로 하지 않지만 부인은 남편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주도적으로 하다보니 남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남편은 부인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긴다(사례7). 배우자 의존이 높은 남편과 결혼생활을 오래 하며 살다보니 환경이 부인의 성격을 바꾸어 놓아 자연스럽게 여자가 약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남편은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지내는데 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태도에 저항하기 위해 근처에 사는 친구나 언니에게 수다를 떨며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 잠 잘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름대로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 교육비 부담이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인이 경제활동에 발 벗고 나섰는데 부인은 보험설계사라든가 연탄장수를 비롯하여 안 해 본 것이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가게를 도왔다. 한편으로 부인이 자녀양육의 소홀함으로 딸이 장애인이 되었다고 여기므로 지금도 부인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진다. 또한 모든 자녀가 골고루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한 것이 부부간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쳐 부인은 늘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사례3).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취미생활이 따로 없어 부부가 노인복지관에 함께 가서 취미반에 들어가 활동을 하는데 남편은 복지관에 혼자 못갈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타고 소극적인 성격이므로 복지관에 가서도 부인의 취미 반에 같이 참여했다가 부인과 함께 집으로 온다(사례3, 7).

부부가 현재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특별히 없어 편안한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다. 집안의 대소사는 늘 부인이 결정하면 남편이 따르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은 부인이 되었고 (사례3, 7), 부인은 남편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일부러 돈 관리를 남편에게 맡겨 시키고 있는데 꼼꼼하게 잘 한다(사례3). 가사 일은 남편과 분담하지 않고 부인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으므로 부인은 늘 힘들게 살고 있다고 느낀다(사례3, 7).

남편의 지나친 의존과 무엇이든지 챙기고 보살펴주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쌓이는 부인의 스트레스는 활발한 외부 활동을 하면서 해소하고 있다. 외부의 공식적인 모임은 부부가 함께 가고 있으나 부부가 따로 모이는 모임은 남편보다 부인의 모임의 수가 더 많을 정도로 부인은 아는 사람이 많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부인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을 어려움과 고난을 종교의 힘에 의지하여 해결해 왔다(사례3, 7). 부인은 남편을 받들고, 내 몸 같이 돌보고,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성경말씀처럼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유형의 부부는 Medly(1976)의 부모-자녀형과 일치하는데 배우자 중 한사람은 부모 역할을, 한 사람은 자녀 역할을 하면서 보호와 양육, 지배와 순종, 의존성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Medly 연구에서의 부모-자녀형과 유사한 특성이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의존형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표 8> 배우자 의존형 부부의 특성

범 주	특 성
부부친밀감	· 남편이 부인에게 늘 의존하므로 친밀감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외로움을 느낌 · 부인은 남편에게 애정을 느껴본 적이 없음 · 남편이 애정표현을 안하지만 부인을 고맙게 생각함 · 남편이 먼저 죽어야 부인은 마음이 놓일 것이라고 느낌
부부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은 부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임 · 남편의 지나친 의존으로 부인이 스트레스를 받음 · 남편과 정반대의 사람과 살아보고 싶음
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인 대화는 하지 않으며 성생활을 안 한지 오래됨 · 부인은 가끔 성욕구가 있으나 참는 것으로 해결함 · 성적인 표현은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징그러움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에 필요한 대화만 하고 거의 대화를 하지 않음 · 남편에게 속을 터놓고 얘기해본 적이 없음 · 남편에 대해 부인은 잘 알고 있어 짐작하며 대화함
성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의 성역할이 바뀜 · 가사일은 부인이 도맡아 하며 도움을 요청해도 돕지 않음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이 집안의 모든 일을 결정함
갈등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은 말을 하지 않고 술이나 게임으로 갈등을 해결함 · 부인은 갈등이 해결될 때 까지 갈등상황을 회피함 · 부인은 종교에 의지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함
사회활동과 공유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은 남편을 늘 데리고 다니며 함께 활동함 · 남편 혼자 즐기는 취미활동이 없음 · 부인은 외부활동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함

5) 냉담형 (사례 1, 11)

이 유형의 남편은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를 가졌기에 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존중하지 않으며 남편 중심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부부 간에 수직관계를 취하며 결혼생활을 해왔다.

부부는 배우자에게 심리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 서운한 감정을 배우자에게 드러내지 않으며 살고 있으므로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부의 유형이다. 이러한 갈등회피의 태도와 억제된 감정들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특히 부인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노년기에도 남편은 고정관념과 권위적인 태도에 변함이 없으므로 부인과는 정서적인 소통을 하지 않고 살아 온 것이 습관이 되었다. 부부 각자는 오래전부터 해 오던 성역할과 습관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특별히 다투거나 싸워서까지 얻어낼 만한 일들이 없으므로 조용히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고 있다.

남편은 대가족의 장남으로(사례1), 이북실향민으로 (사례11) 살아왔기 때문에 독립심과 책임감이 강하며 자신의 주도 하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전통적인 남편의 모습이 이상적인 가장의 모습으로 여기고 있다.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으며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부부는 서로의 배우자에게 친밀한 감정이나 표현은 해 본 적이 없지만 남편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부인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사례1). 부부가 54년을 살아온 작년에 처음으로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남편이 챙겨주었고, 돈이나 선물 같은 것을 남편에게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이 살다가 작년에 처음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사례11). 그러나 부인은 이러한 남편에게 친밀한 애정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편에게 의지를 하게 된다(사례1, 11).

부부는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코 합쳐질 수 없는 평행선이지 일심동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해가 가지 않고(사례1, 남편), 부부는 애정이 없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도 정으로 사는 사이(사례11, 남편)라고 생각한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 생각은 없고 반드시 다른 사람과 살아보아야 한다.

부부의 친밀감 수준은 매우 낮고 부부가 각방을 쓰게 된지 오래되어 노년기에 부인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라고 생각한다(사례1). 부부가 성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부인의 자궁수술(사례1)과 당뇨(사례11)가 계기가 되어 부인이 성관계를 원치 않게 되면서 차츰 횡수를 줄여가다가 아예 안 하게 되었다. 젊어서부터 부부가 성

적인 표현이나 대화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부인은 남편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다녀 본 적도 없을 만큼 보수적으로 살고 있다(사례1). 부부가 외출을 할 때면 남편은 앞장서서 가고 부인은 뒤 따라 가는 형식으로 부부가 살아왔는데 부인은 이러한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자신의 존재를 다 죽여야만 살 수 있었다(사례 11).

부인은 남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낙심하거나 우울하고 무슨 일에도 의욕이 없고 기운이 나질 않는다. 또한 사소한 일에도 쉽게 눈물이 나고 남편이 있어도 외롭게 느껴진다.

부인은 남편이 은퇴 후 부부 둘이만 있으니까 할 말도 없고 어색해서 굉장히 나쁘다(사례1). 애들이 같이 있을 때는 애들하고 어울려서 남편에게 서운했던 감정이나 화가 났어도 쉽게 풀어졌는데 둘이 있으니까 그게 되질 않아서 어렵기 때문이다(사례1). 부부가 대화는 잘 하지 않으며 하게 되더라도 자녀들과 관계된 이야기이거나 남한테서 들은 얘기들을 주로 하고 부인은 속엿 말을 터놓고 해 본 적이 없다(사례1). 부인은 남편에게 속내를 보이거나 그동안 쌓인 감정을 표현하면 싸움으로 번질까봐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여긴다(사례11).

감정적 자기노출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인 냉담형 부부들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마음속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살고 있다. 부인은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며 부부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르지만 논쟁을 하지 않고 부인이 체념을 하며 자존심을 죽이며 산다. 위장된 의사소통은 갈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기 보다는 갈등이나 불화를 모호하게 하거나 가면을 쓰고 반응하는 현상으로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보다 더 좋지 않은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냉담형의 부부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 제한된 상태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긍정적 상호작용의 부족이 부부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줄여 부부갈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부부들은 비록 부부긴장을 초래하게 될지라도 부부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자신의 생각이 늘 100% 옳으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의견을 내 놓으면 부인이 당연히 믿고 따라와 주어야한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함께 살았다. 남편은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도 세고, 프라이버시가 강해서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들으면 잘못된 생각은 안하고 성질부터 내는 사람(사례1)이고, 부인은 자신보다 덜 배운 사람이라 자신과는 이상이 맞지 않아 대화가 되질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사례11).

부부의 성격은 서로가 정반대로 남편은 외향적으로 할 말 다하고 감정노출을 편하게 하지만, 부인은 내성적이고 순종적이라 속으로만 느낌과 감정을 죽이거나 생각하고 곁으론 드러내지 않는다.

돈 관리와 가정의 대소사를 비롯한 의사결정은 늘 한 쪽에서만 하고(남편), 가사 일은 전적으로 당연히 부인이 담당한다. 남편은 가사일이나 관리는 부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돕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아버지는 옛날 같으면 이혼을 당했을 것이라고 하며, 엄마니까 같이 살았다고 아버지에게 충고를 해주고 어머니의 일을 돕고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보시라고 권유도 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사례 11).

부인은 화가 나면 남편과 다투기 싫어서 화를 삭히는데 남편은 이를 알아도 그냥 방치한다. 시간이 지나면 부인이 저절로 스스로 풀리니까 부부가 참고 살다보면 연륜이 생기는 것이고(사례1), 혹은 부인은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나면 아예 말을 안 한다(사례 11). 부부간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체념하거나(사례1), 종교의 힘으로 버티며 살아왔다(사례11).

부부 공동의 여가 시간이나 취미활동은 없고 공식적인 모임에도 주로 남편이 나가며 부부가 모임에 같이 나가도 함께 동석하지 않고 따로 앉는 것이 편하다(사례11). 부부가 함께 공식적인 모임에는 동반하여 참석을 하지만 공유하는 취미활동이 없다. 남편은 젊어서부터 외부의 일들이 늘 많아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지금도 은퇴 전의 친구들과 등산을 하거나 오후에는 자원봉사(교육과 강의)를 하고 저녁에 집에서는 신문스크랩을 하거나 일기를 쓰고 공부를 한다. 성격이 조용한 부인은 집 근처의 복지관에 나가서 취미생활을 하고 주로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사례1, 11)

이 유형은 Sweeney(1982)의 연구에서 불행하지만 습관과 두려움 때문에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부부의 유형과 일치한다.

박원희(2006)의 연구에서 회피형 부부관계처럼 친밀감이 낮고 의사소통이 효율적이지 못하면서도 갈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갈등이 적다기보다는 갈등표출을 하지 않은 채 갈등이 계속 내재화되면서 남편과의 상호작용을 체념하며 회피하는 것

으로 보이는 유형이다. 이처럼 박원희 연구의 회피형과 유사한 특성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냉담형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표 9> 냉담형 부부의 특성

범 주	특 성
부부친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은 부인을 배려하지 않으며 둘이 있으면 불편함 · 부부의 정서적인 소통이 어렵고 잘 이루어지지 않음 · 배우자 서로 애정표현을 들어보거나 해본 적이 없음 · 남편은 마음속으로 부인에게 고마움을 생각하고 있음 · 부인은 남편과 애정은 없지만 의지가 됨 · 부부간의 친밀감 수준이 낮음
부부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는 오래 살아도 만날 수 없는 평행선임 ·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음
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생활을 하지 않아 부인은 있으나마나 함 · 부인이 원치 않아 안 하게 되면서 욕구가 사라짐 · 성적인 표현이나 대화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음 · 성관계 없어도 부부는 함께 살아온 정으로 사는 것임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지냄 · 감정표현을 하지 않으며 속엿 말을 하지 않고 살아 움 · 대화는 피상적인 수준이며 활발하지 않음
성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역할을 유지함 · 가사일은 여자의 일이므로 남편은 분담하지 않음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 남편이 주도적으로 결정함 · 부부가 의논은 하지 않으며 부인이 기분 좋을 때 남편이 관철시킴
갈등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에 의지하며 해결함 · 화가 나면 감정을 억누르고 체념하며 속으로 삭힘
사회활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모임에는 동반하지만 공유하는 취미활동이 없음

공유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을 가셔도 동석하는 것보다 따로 앉는 것이 편함 · 남편은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부인의 일에 관심이 없음 · 여가시간을 부부 각자 즐김
------	---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노인 단독가구가 급증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여 부부만 생활하는 단독가구 노인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단독가구 이후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한 후, 그 특성에 따라 부부관계 유형을 나눔으로써 노년기 부부의 삶의 질 연구와 노인복지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단독가구 노인부부 중 결혼은 초혼이며 자녀가 있는 부부 12쌍을 선별한 다음, 심층면접을 통하여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알아보고, 노인부부가족으로 살게 되면서 달라진 변화와 달라진 환경에 부부가 적응하는 방법의 특성들을 토대로 하여 부부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노인 부부가 둘만이 살아가면서 배우자와 서로 적응하는 방법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친밀형, 공식형, 갈등형, 배우자 의존형, 냉담형)으로 분류하였다.

노년기 노인부부가족의 특성들은 부부간의 친밀감, 부부 간의 성생활, 부부간의 애정 표현, 부부간의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가사일의 분담과 의사결정, 갈등 해결의 방법,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활동과 시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수준은 노인 부부의 적응에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부부가족의 부부적응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친밀형의 부부는 노년기에 가장 이상적이고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부부의 유형이다. 친밀형 부부가 다른 유형의 부부들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별되는 요인은 부부친밀감이다. 이 유형의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돈독한 친밀감은 부부가 젊어서부터 형성되었으며 노년기에 부부만 생활하게 되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다. 부부는 평소에 자유로운 감정노출과 애정표현을 통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해 왔으며 이런 친밀감은 부부의 성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성기능 장애가 있음에도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활발하고 주기적인 성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화로 인해 달라지는 신체적 건강수준의 저하나 질병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보다는 부부의 정서적인 친밀감과 부부가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노력이 부부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친밀형 부부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활발하여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갈등이 쉽게 해결된다는 점이다. 이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노력이 존재하고 있어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부의 태도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가사노동 분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고 나아가 부부의 사회활동과 공유여가의 내용으로도 연결되었다. 부부에게 학력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위계질서가 있으며, 자녀들이 모두 성공하여 자랑스러운 존재이다.

둘째, 공식형의 부부는 부부라는 가족 내의 역할을 중시하는 부부로 공식적인 책임과 의무에 따라 부부관계를 지속해 가는 유형이다. 친밀감 수준은 보통으로 부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므로 결혼생활에 큰 불만이 없는 편이며, 갈등 상황 또한 크게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 부부는 부부중심이나 자녀중심도 아닌 부모와 가족 중심으로 생활해 오면서 일생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경을 함께 나는 동반자라는 의식이 강해 부부가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심리적으로 소원한 냉담형 부부와 구별된다. 또한 부부가 서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나 오래 살아 온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적응해 나가며 생활하고 있다. 성생활은 부인의 신체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러한 부분은 부부간에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친밀형 부부와 차이가 있다.

의사소통은 활발한 편인데 주로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각자의 외부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는 형식적인 수준이어서 부부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결정은 남편이 주도적으로 해오다가 남편의 은퇴 후 부부가 절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최종 결정은 부인이 주로 하는 편이다. 가사노동 분담은 은퇴 후 길어진 여가시간과 부인의 육체적인 에너지 쇠퇴를 이해한 남편이 가정에서 힘을 요구하는 일이나 집안청소 정도를 도와주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갈등형 부부의 특성은 은퇴라는 생애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 부부관계에 큰 영향력을 미쳐 늘 다투며 산다. 남편의 은퇴 전에는 부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했으므로 부부간에 큰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은퇴 후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문제와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미처 몰랐던 배우자의 성격이나 은퇴 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로 인하여 부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 유형의 부부는 갈등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소원해져 부부친밀감은 낮아졌으나 분위기가 개선되면 성생활을 비롯한 애정표현이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갈등만 해결되면 부부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부친밀감이 있는 부부이다. 갈등형의 부부에서 나타난 특성 중 하나는 은퇴 전에는 가정의 의사결정을 남편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나 은퇴 후에는 부인이 주로 결정하므로 은퇴로 인해 부부간의 권력 이동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의 분담 또한 남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분담함으로써 점차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 부부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유형인 친밀형 부부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부부간의 상호노력이 요구되는 유형이다.

넷째, 배우자 의존형의 부부는 부인은 남편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부모 역할을, 남편은 부인에게 의존하는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형적인 부부관계로 살아가고 있다. 가정 내의 의사결정을 비롯하여 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가사노동, 사회활동과 취미생활 등이 거의 부인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남편은 부인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 또한 남편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감정이나 애정표현을 하지 않으며, 한 쪽 배우자의 건강악화로 성생활을 하지 않아 부부친밀감이나 결혼만족이 낮은 부부이다. 부부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남편은 소극적인 방법(회피나 음주)을 사용하며, 부인은 불평등한 부부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종교생활에 의지하며 해결하였다.

남편의 의존은 부인에게 자립심과 독립심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지만, 부인은 자립이 불가능한 남편이 자신보다 먼저 사망해야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므로 자신의 힘으로 남편을 책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섯째, 냉담형의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고 노년의 성에 대해서도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남편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로 부부의 친밀감 수준은 매우 낮으며 애정도 없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공식형 부부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부인이 감정표현을 억제하거나 체념하는 정도가 심하고 오랫동안 습관으로 굳어진 상태이며 의사소통도 소극적이고 원활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부인은 자신의 감정을 숨김으로써 갈등이 노출되지 않아 싸움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부부관계가 개선되기 힘든 부부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간의 상호지지와 협조가 부족한 부부로 살아왔을지라도 부부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쌓아온 정으로 살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남편은 부인에게 의지의 대상이다. 애정표현은 젊어서부터 해 본 적이 없고, 성생활은 노년기에 이르러 부인의 신체적 변화에 따라 하지 않고 지낸지 오래 되었다. 의사결정은 주로 남편이, 가사노동은 전적으로 부인이 하는 모습에서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부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유형의 부부는 남편의 결혼만족감은 높으나 부인의 결혼만족감은 낮게 나타나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인에게 이러한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딸의 지지와 종교의 힘인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부부관계에서는 부부중심보다는 자녀중심임을 알 수 있다.

2. 제언

노년기 부부적응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을 나타냈는데 다양한 유형의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부들에게 동일한 방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친밀형의 부부는 노년기에 가장 이상적이고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부부 유형으로 부부의 친밀감의 정도가 다른 유형의 부부들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별된다. 이 유형의 부부에게는 현재의 친밀감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켜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교육,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연계해서 제공한다면 삶

의 가치와 자기유용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여가프로그램의 내용은 노년기 부부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부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식형의 부부는 부부친밀감 보다는 가족 내의 역할에 따라 부부관계를 지속해 가는 유형으로 친밀감 수준은 보통이며 갈등 상황 또한 크게 발생할 여지가 없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부부에게는 부부관계 향상을 위하여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성생활은 노인 부부의 결혼만족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성공적이며 긍정적인 노년기의 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올바른 노년기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 성의 의미, 성활동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갖추어져야 한다. 각종 사회 교육기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등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갈등형 부부의 특성은 은퇴라는 생애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 표면화된 유형으로 은퇴 후 부부친밀감이 낮아졌으나 성생활을 하고 있어 갈등만 해결되면 부부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부부에게는 분노조절 및 갈등을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며 각자 의사소통훈련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경청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상황을 줄일 수 있는 부부이다. 따라서 부부상담이나 치료, 동년배 노인들과의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 사이를 서로 격려해 주고 지지해줌으로써 부부간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남편이 부인에 비해 감정적 자기노출이 낮고 감정의 표현을 어려워하므로 이러한 교육이 남편들에게 실시되면 보다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의존형의 부부는 부인은 남편을 보호하는 부모 역할을, 남편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형적인 부부관계로 의사결정, 의사소통, 가사노동 등이 거의 부인에게 편중되어 있는 유형이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노년기 부부관계나 관계를 맺고 있는 남편 혹은 부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인 부부들

의 관계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등한 부부권력 관계의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년기 부부들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서는 남성에 종속되고 가정에 희생해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남성의 성역할에 대해서는 가족 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성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현실인데 반해, 배우자의존형의 부부는 상호간에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뒤바뀌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우자의 성역할에 대한 기대와 역할수행의 불일치가 나타날 경우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유발됨으로써 노년기 부부관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에서 비롯되는 부부간 갈등을 예방하고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상호 성역할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냉담형의 부부는 남편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로 부부의 친밀감 수준이 매우 낮고 의사소통 기술도 부족하여 대화수준도 낮다. 또한 부인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편이며 성생활에 대한 인식도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냉담형의 부인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고취시키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며 부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따라서 임상이나 상담의 현장에서는 부부를 둘러싼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부부를 지지하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견고한 성역할 분화로 노년기 부부관계의 재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융통성 있는 성역할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하고 가사노동을 비롯한 가정 내 역할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3. 제한점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노인부부 중 초혼으로 부부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건강이 허락하여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부부 12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노인 전체의 부부관계 유형이라고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참여부부의 수가 너무 적은 편이므로 참여부부의 수를 늘려 보다 뚜렷한 특징을 찾기 위해서는 양적연구의 방법도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부부관계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면담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차후 계

속 되는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참여부부와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좀 더 특징적인 부부관계의 유형이 나오길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함께 심층면접을 하였지만, 부부를 각자 심층면접을 하여 부부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유형인지 혹은 배우자와 다른 특징을 지닌 유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부부가 단독가구를 형성한 이후의 부부적응에 대한 특성 별로 부부관계의 유형을 나눈 연구이지만, 차후에는 부부 유형별로 배우자 사망 후의 적응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므로 종단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황혼이혼과 배우자 한쪽의 사별로 인해 늘어나는 재혼 부부의 부부관계 유형과 건강의 악화로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유형,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의 부부관계 유형,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부부의 부부관계 유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미선(1991). 단독가구 노인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주령(1990). 도시노인의 생활 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숙(2002). 노년기 성에 관한 질적 연구; 무배우자 노인의 성 욕구 실태와 해소 유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이선미(2001). 노년기 부부갈등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제 10권.
- 김기연·신수진·최혜경(2003).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1권 3호.
- 김동배(2003).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 김수현(1999).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조애저·이삼식·송인주(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애련·한내창(1997).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118호.
- 김애순(1993). 개방성향과 직업·결혼·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나(2001).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종(1999). 사회복지조사방법론. 학지사.
- 김요완(2000). 부부의사소통 유형과 성 지식 수준의 성 만족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 2호.
- 김재엽·김동배·최선희(1998). 노인부부의 스트레스와 갈등·우울증 그리고 권력. 한국노년학회지 제 18권 3호.
- 김종숙(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희·이창은(2000). 유배우자 노인의 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 20권 3호.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1). 한국노년학회지 제 18권.
-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 _____ (1997). 노년학. 교문사.
- _____ (2000). 인생의 아름다운 황혼을 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아산 88.
- _____ (2007). 노년학. 교문사.
- 김태현·박주희(2005).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10권 3호.
- 김태현·전길양(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 17권 2호.
- 김태현·한희선(1995). 노년기의 부부관계. 생활문화연구집 제 9집.
- 김혜경(1996).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2006). 3세대가족과 핵가족의 각 세대별 인구사회학적 부양관련 태도 및 가족관계적 특성의 차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지 제 27권.
- 김혜선·김은하(2004). 남자노인의 부부관계 체험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 25권.
- 김홍란(2004). 노년기 부부를 위한 성적 갈등 대처 교육 프로그램.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영주·옥선화·김지애(2006). 삼·사십대 기혼남녀의 성적 의사소통과 결혼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제 43권 8호.
- 모선희(1991). 가족 내에서 노인의 의사결정권. 한국노년학회지 제 11권 1호.
- 문혜숙(1993). 부부적응과 성적 적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연구; 도시 중산층 결혼남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원희(2006). 중년 여성이 지각한 부부관계 유형과 갱년기 경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2003). 가족과 일. 하우.
- 박지은(2001). 노인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화순(1999). 여성노인의 부부관계. 노인복지정책연구지 제 14권.

- 서병숙(1990).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가족과의 상호의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논문집 제 2호.
- 서병숙(1994). 노인연구 (3판). 교문사.
- 서병숙·김영나(2000). 노년기 부부적응에 대한 문헌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제 18호.
- 서혜경·이영진(1997). 노년기의 성에 관한 다각적 고찰; 노인의 성 장년 언제인가. 노인복지문제 세미나 발표문.
- 성남 여성의 전화(2003). 여성어르신 성인식도 조사 및 성교육모델 개발. 토론회.
- 손승영(1999). 노년기 성과 사랑. 사회발전연구지 제 5권.
- 신화용·조병은(1997). 남편이 은퇴한 부인의 역할수행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116호.
- 안선영(1994).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과 권위유형·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부산시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 97호.
- 양명숙(1996). 남녀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비교 연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 26호.
- 양옥남(1995). 노인과 부양자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1990). 가정학적 고찰. 가족학 논집 제 2권.
- 유영주·심순옥·김경신(2000).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유은희(1994).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도시가족의 부부문제연구. 한국가족상담 교육연구소 편 하우.
- 윤 영(1990).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양현(1987). 현대 한국 부부관계의 갈등유형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 30대 도시 중산층 부부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규(1975). 한국 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 이동원(1988). 도시 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순희(1992). 일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서울시내 일부노인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신숙·이경주(1999). 남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 19권 2호.
- 이신숙(1997).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 17권 2호.

-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은(1999).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행옥(2002). 노년기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정서적 상호작용·사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호선(2004). 노년기 성 갈등 유형의 상호학문간 연구; 사회학적·신학적·목회상담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정빈·정혜정 (1997). 성역할과 여성. 학지사.
- 전길양(1999).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회.
- 전길양·임선영(1998). 노년기 부부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6호.
- 정은희(1991). 오늘의 성문화와 부부의 성. 사회문화연구소.
- 조병은·신화용(1997). 남편이 은퇴한 부인의 역할 수행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 116호.
- 조성숙(1999). 노인과 성. 노인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편.
- 지금수·김현지(1999). 노인의 가정 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응 관련변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 3권 1호.
- 차성란(1998).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및 노동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제 127호.
- 최연실(1996).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4권.
- 최혜경·안정신(1999). 이혼이 여성의 친밀감과 생성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지 제 6권 1호.
- 통계청(2003). 장래인구추계.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1999). 풍요로운 노후 가꾸기; 노년기 준비교육프로그램.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홍성희(1998).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노년층의 노후 설계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 128호.

홍숙자(2001). 노년학 개론. 하우.

Adams, B. N. (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Chicago: Rand McNally Pub.

Anderson, T. B. (1992). Conjugal Support among Working-Wife and Retired-Wife Couples. In M. Szinovacz(ED.)

Antonucci, T. C. (1990). Soci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Binstock, R. H., & George, L. K.,(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rd ed). San Diego: Academic press.

Atchley, R. C. (1980). The social force in later life, (CA: Wadsworth pub).

(2000).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 Bogdan, R., & Taylor, S. J.(1975).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Wiley.
- Brubaker, T. H. (1985). Later life family, Beverly Hills, CA: Sage
- Brubaker, T. H. & Herman, C. B. (1992). Responsibility for household tasks comparing dual-earner and dual-retired marriages, In Szinorncz. M., Ekerdt D. J. Women's retirement : Policy implications of recent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 Brecher, E. M. (1984). Love, sex and a Boston: Little Brown.
- Carstensen, L. L. (1993).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3).
- Cox, F. D. (1999). Human intimacy: Marriage, the family, and its meaning, Wards worth publishing company.
- Cuber, J. F. & Haroff, P. B. (1986). Five types of Marriage, A. S. Skolnick and J. H. Skolnick, *Family in Transition* 5th. ed.
- Dorfman, L. T. (1992). Couples in Retirement: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Szinorncz. M., Ekerdt D. J. & Vinick, B. H. (Eds) *Families and Retirement*.
- Dorfman, T. & Heckert, D. A. (1988). Equalitarianism in Retired Rural Couples: Household Tasks, Decision- Making.
- Duvall, E. M.(1977). *Agings Family Members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J. B. Lippincott Company.
- Duvall, E. M. & Miller, B. C. (1985).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 Jacobson, N. & Margolin, G. (1970).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 Mazel.
- Kelly, J. R. (1981). Family leisure in three communic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0(1).
- Kvale, S. (1992). Postmodern psychology: A contradiction in terms? In s. Kvale(Ed). *psychology and postmodernism*. London: Sage.

- Lee, G. R. & Shehan, C. L. (1989).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4.
- Leitner, M. J. & Leitner, S. F. (1985). *Leisure in Later Life*, New York: The Haworth Press.
- Levenson, R. W. & Carstensen, L. L. & Gottman (1995). Emotional Behavior in long-term marriage, *psychology and Aging*, 10(1).
-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 Miller, B. C. (1976). "A Multivariate Development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JMF*, 38(Nov).
- Mirowsky, J. (1985). Depression and marital power: An equity mode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 Moss, B. & Schwebel, A. (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 Orthner, D. K. (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MF*, 37(Feb).
- Rowe, J. & R, Kahn.(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 ~~Schweppe, C. (2000). Alter(n) an dem Land-Levenssituation und Lebensentwürfe, Opladen.~~
- Sprecher, S. & Felmlee, D. (1997). The balance of power in romantic heterosexual couples over time from "his" and "her" perspectives, *Sex Roles*. 37(5/0).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Sweeney, J. (1982). Taking the long view of marriage: Why do some endure?, *LA. Times*, 1982. 6. 21.
- Snyder, D. K. (1979).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 (MSI-R)*

-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Troll, L. & Smith, J.(1976). Attachment through the life span: some questions about dynamic bonds among adults, *Human Development*. 19(2).
- Vinick, B. H. & Ekerdt. D. J. (1992). Retirement: what happens to husband -wife relationships,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4.
- Weiner, I. B. (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Y: Wiley.
- Wesson, L. (1996). *Relative income, power, perceived equity and marital in dual-career families (role shari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Ph. D.
- White, T. H.(1983). The Relative Importance of Educational income as predictors in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7. no 3.

ABSTRACT

A Study on the Elderly Marriage Adjustment of Living with a Spouse Only

- Focused on the type of marriage adjustment

Lim, Song Eu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know the adjustment of 12 elderly married couples. Concerning the rapid increase of homes consisting only of elderly couples, this research has been designed in order to not only illustrate this particular social phenomenon but also to serve as the ground work for studies regarding the quality of life for elderly couples. While focusing on this new formation of homes, this research carefully examines multiple elements that influence conjugal relations among elderly couples and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n ways elderly couples adapt to this new environment. Thus as a result, this in-depth analysis differentiates certain characteristics and categorizes them into different types of conjugal relations.

Twelve homes comprising elderly couples were carefully selected. These couples were at least 65 years old, lived in cities, had children of their own,

and had only been married to their current spouses. By conducting qualitative interviews, certain factors that impact conjugal relations were highlighted and closely observed. The changes that emerge from this new environment of elderly-couple homes and the distinct ways elderly couples cope with such changes, ultimately delineated five different types of elderly couples.

The level of intimacy between spouses, the couple's sex life, the tendency to share emotional feelings,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amicable conversations, the distribution of house chores, the level of cooperation when making decisions and when resolving conflicts,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successfully rearing the children, and the amount of time spent together were the main factors that tremendously impacted the level of adaptability among elderly couples in their years of senescence. Significant changes that occur during the periods of senescence, such as the deterioration of physical health and the declining of financial power, only played a minor role in influencing the adaptability of elderly couples.

First, the Intimacy Type is the most ideal and the most satisfactory type of couples. Intimacy Type couples are distinctly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couples due to the couple's strong intimacy. The couples' particular intimacy that defines them as the Intimacy Type comes from this strong intimate feelings that were initially generated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This feeling accentuates as couples solely interact with their spouses at homes in the years of senescence. The Intimacy Type couples freely exercise their emotional feelings for each other, and this ultimately enhances their sex lives even if the spouse is sexually impotent. With old age comes other health

related complications that may easily lead to sexual impotence. However, the couple's intimacy and the positive attitude towards this new change in their lives, bring about a greater influence on the couple's relationship. Thus, according to the research, it is obvious to see that the couple's intimacy can deeply affect the elderly couple's marriage.

Another typical trait of the Intimacy Type couples is the effectiveness when resolving conflicts. With frequent and active communication, Intimacy Type couples easily respect their spouse's perspective from trusting each other and from the effort to uphold a good relationship. This positive attitude was also observed when making fair decisions, when voluntarily and enthusiastically doing house chores, and also affected the couple's social activities outside their homes. The couple's financial status did not impact the couple's intimate relationship. However, the couple's healthy relationship led to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these sons and daughters not only respected their parents in return, but they were also successful and made their parents proud.

